Weekly

공감

녹색은 생활이다

No.44
2010.01.13



위기를 기회로!
더 큰 대한민국

중점기획 2010년 교통운영체계 확 바꾼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해구시대
바다인류로의 진화
이제, 지구(地球)가 아니라 해구(海球)입니다
2012 여수세박이 바다인류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경제, 블루이코노미를 창조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2050년 미래 해양과 인간의 만남을 2012 여수세박에서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는 제 4의 도약
88올림픽, 93대전박람회, 2002월드컵에 이은 대한민국의 네 번째 도약을 이끌어 냅니다
인류에는 제 4의 물결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에 이은 바다혁명을 통해 블루 이코노미 시대를 열어갑니다

일출을 보려면 어둠이 가시기 전에 일어서라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새해가 서설(瑞雪)로 시작됐다. '눈폭탄'으로 변해 고생스럽긴 하지만 백호(白虎)의 해인 경인년에 어울리는 폭설이다. 2009년 초는 정부의 비상경제체제 선포로 시작했다.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에게 대공황에 버금간다는 세계 경제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다. 비상경제상황실이 청와대 지하벙커에 설치될 때만 해도 언제 비상경제가 끝날 수 있을지 암담했다.

위기는 기업인에게 익숙한 일이다. 시가총액으로 세계 1위 기업인 GE를 20년 동안 이끌었던 잭 웰치 회장은 특히 위기관리에 뛰어났다. 그의 저서 〈위대한 승리(Winning)〉의 '위기관리' 편에는 위기 때 해야 할 5가지 실행전략이 제시돼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문제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라'이다. 그의 전략에 의하면 1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한 정부의 대응은 첫 단추부터 잘 끼운 셈이다. 금융위기에 웬 지하벙커냐는 비아냥거림도 있었지만 좀 지나친 듯한 대응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

우선 국정을 맡은 공무원들에게 전대미문의 경제불황에 따른 위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국가 경제를 책임진 최고위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외환위기 때 나타났던 부처 간의 이해부족과 갈등을 줄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케 했다.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게 위기 대응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토록 함으로써 큰 폭의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해 당초 -2퍼센트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으나 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한 정책 집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10년 전의 외환위기 경험도 톡톡히 백신 노릇을 했다. 정부의 신속한 국제공조를 통한 외환 확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BIS) 높이기, 기업의 든든한 재무구조 유지 등은 외환위기를 통해 터득한 값비싼 교훈들이었다. 고용시장에서도 정부의 고용정책이 큰 기여를 했다.

희망근로나 인턴 등을 통해 30만 개 이상의 임시직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성장이 멈춘 상태에서도 일자리 감소를 7만여 개로 막을 수 있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일자리가 일시에 1백50만 개나 줄어든 것에 비하면 선전(善戰)한 셈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있다.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면서 강조한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등 국정쇄신이 계획한 대로 추진됐는지는 의문이다.

공기업 개혁은 경영진을 교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민영화 내지 경영의 효율성 향상은 두고 봐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규제완화는 많은 부문에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작 핵심 분야의 덩어리 규제는 별 변화가 없다. 의료나 교육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은 이익집단의 반대에 부딪쳐 그대로다.

일출을 보려면 어둠이 가시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아직 위기국면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마무리될 때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맞게 될 것이다. 저탄소경제로의 이전은 새로운 산업의 부상(浮上)을 예고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선두주자로 올라선 한국의 주력 기업들은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하는 선두기업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대반격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에 대응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선두기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자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일이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한층 시급한 일이라 생각한다. G

Contents

Weekly
2010.01.13
No.44(통권 145호)



COVER STORY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눈부신 서설(瑞雪)과 함께 빛을 밝힌 2010년 대한민국. 그 희망의 빛줄기 뒤에는 지난 1년 동안 온몸을 던져 비상(非常)경제를 비상(飛上)경제로 거듭나게 한 '국가대표'들이 있었다.







일러스트 · 이우정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1.1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위기를 기회로!
더 큰 대한민국

2009년 1월,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어두운 그림자를 깃들이자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 '워룸(War Room)'을 설치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UAE 원전 수주 등 놀랄 만한 성과를 이끌어내며 2010년을 향한 희망의 기틀을 마련했다. 실전(實戰)의 위기의식이 낳은 실적(實績)이었다.

중 점 기 획 교통체계 개편이 국가경쟁력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50

공감 라운지

GONGGAM KOREA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43호(2010년 1월 6일자) 기획특집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 국운 상승 기회로"

"우리나라에서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경사요, 축제다. 세계 속의 코리아 브랜드와 경제력, 기술력, 문화예술, 관광, IT강국의 이미지에 맞는 콘텐츠를 지구촌에 널리 알림으로써 G20 정상회의가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_오주형

"기획특집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뿌듯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중이다.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겉모습인 산업이나 경제만 발전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사고방식이나 의식수준이 함께 높아져야 한다. 지도층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법과 규칙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며 선공후사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한국인은 저력 있는 민족이어서 위기나 시련을 돌파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해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국운이 상승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다. 이 기회를 잘 살려 지구촌을 선도하는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_bjd1004

"1950년대 받은 도움, 이제는 되갚을 때"

"'한국인의 情, 세계와 나눕니다'라는 기사를 읽고 이제 우리나라도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만큼 성장했으니 다른 나라를 돕고 지원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50, 60년대에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어렵고 뒤떨어진 나라에 우리 실정과 형편에 맞는 지원 노력을 베풀어야 한다. 이러한 공적인 개발원조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유지를 위한 파병, 해외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_최영지

43호 Reader & Leader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의 기고문'을 읽고 독자가 보내온 댓글입니다.

"고건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출범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다. 위원장을 필두로 전·현직 정부 인사들을 아우르며 지역별, 계층별 안배까지 염두에 둔 진정한 의미의 통합위원회라 생각한다. 모쪼록 분열과 갈등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이란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는 중책을 잘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_유은경

43호 '그린 식당을 가다–다 안 먹으면 못 나가는 문턱 없는 밥집'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한식은 음식의 특성상 잔반이 많이 생긴다. 잔반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쓰레기로 처리하면 악취와 침출수로 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 그런 마당에 '문턱 없는 밥집'에서는 잔반이 거의 생기지 않도록 유도하고 빈 그릇을 숭늉으로 씻어먹게까지 하니 그 신선한 발상이 놀랍다. 다른 식당이나 가정에서도 음식 쓰레기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혜를 짜내어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 지구촌에는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가 많은데 음식이 남아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가. 음식도 돈이고 자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_박정도


손잡고 함께 가는 대한민국 만들자


한국인의 情, 세계와 나눕니다
공적개발원조 3년간 두 배로 확대

알립니다

1 해안 발전 아이디어 및 겨울 해안 감상 공모

국토해양부 해안권발전기획단은 해안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겨울 해안에 대한 감상평을 담은 사진, 시, 수필 등을 공모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안권 초광역 발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우리 해안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공모 대상은 △노후 해안과 해안마을 등에 대한 미관 개선 방안 △지역 해안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해안 발전 방안 △겨울 해안의 계절적 풍광과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 △겨울 해안과 우리 삶의 의미를 표현한 시, 수필 등이다. 응모 작품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총 20명의 당선자를 선정해 오는 2월 19일 발표한다. 당선작은 향후 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해안권 발전정책 홍보 등에 활용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안권발전기획단 홈페이지(www.mltm.go.kr/coast)를 통해 작품을 접수시키면 된다.

문의 : 국토해양부 해양권발전기획단 031-436-8984


동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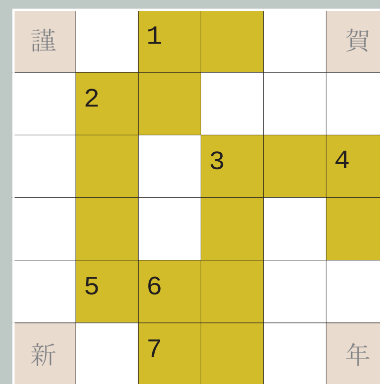
2 2010년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선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2010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선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모집한다.

사업 기간	2010년 3월~12월
모집 인원	전국 1천1백80명 (시도교육청별 모집공고, 원서 접수 및 선발)
처우	신분 :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10개월) 소속 : 배치학교 급여 : 월 1백49만9천4백원(세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적립금 지급
원서 접수	2010년 1월 15일(금) 오후 6시까지 시도교육청별 접수. 지역별로 1개 지역교육청에만 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복수 지역 응시는 최대 2개 시도까지만 가능 (2009년 복수 지역 응시 금지에서 변경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 지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2-3704-9822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공감 퍼즐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월 27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42호(12월 23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코리아 **3** 기후변화 **5** 하늘 **6** 가오리연 **9** 온실가스

세로 **1** 코펜하겐 **2** 아기 **4** 화석연료 **7** 오메가 **8** 체온

〈Weekly 공감〉 42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서명재 경남 진주시 상대1동
엄지영 강원 영월군 영월읍
위예지 경기 화성시 서신면
한동민 경기 시흥시 신천동

가 로

1. 주문을 받음. 일을 따냄.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전 건설 공사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OO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과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해가 뜸. "그는 경인년 새해 아침 OO을 맞으며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진다며 동해 바닷가로 떠났다."
3. 어흥~. 독자 여러분, 올해는 OOO 등에 올라타서 일취월장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5. 날마다 발행하는 신문.
7.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하죠.

세 로

1.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사상 최고치인 4백1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OO은 세계 교역량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세계 9위로 올라섰으며, 대한민국 상품의 세계 OO시장 점유율도 3퍼센트에 달했다."
2. 지금의 노고를 통해 오랫동안 안락을 누린다는 뜻의 사자성어.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임기 중반을 통과하는 금년, 저는 'OOOO'의 자세로 일하고자 합니다.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궂은일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 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
4.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OO들이 많다."
6. 마음 씀씀이나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것을 나타내는 말. "어머니는 나의 합격을 OO히 소망하고 계셨다."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GONGGAM 공감 라운지 KOREA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 공감



조영철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에 사는 회사원 박경옥(31) 씨는 6개월째 〈Weekly 공감〉을 정기 구독하고 있다. 박 씨는 "〈Weekly 공감〉의 깔끔한 표지 디자인과 다양한 정보가 마음에 든다"며 "앞으로도 기꺼이 애독자가 되겠다"고 했다.

〈Weekly 공감〉을 보게 된 동기는.

회사 동료가 〈Weekly 공감〉을 열심히 보고 있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읽어 보니 신문에서 접할 수 없던 정책 정보를 깊이 있게 소개하고 있더군요. 표지 디자인도 정부에서 발간하는 잡지 같지 않게 산뜻해서 정기구독을 신청했어요. 〈Weekly 공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만 하면 무료로 보내주더군요.

〈Weekly 공감〉을 보면서 좋은 점은.

무엇보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지나가는 정책 정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생활정보도 아주 유용하답니다.

〈Weekly 공감〉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일반 서민들의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말랑말랑한 인물 기사가 많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워요.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면.

올해는 호랑이해이니 호랑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전설이나 관련 기사를 연재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데 자전거 여행지로 좋은 곳도 소개해주기 바랍니다.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지난 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설광환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1.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금융위기에 위축됐던 경제가 차츰 좋아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는데, 이런 때 전해진 한국의 원전 수출 소식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의 자그마한 나라가 지금은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기술의 중심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2. 글이나 말로는 늘 좋게 쓰거나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닌가. 내가 하는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나라를 더 크고 아름답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새해부터 여러모로 바뀔 세금 혜택이라든지 부동산법 등 올해부터 바뀌는 금융 관련 소식을 다뤄주면 좋겠다.

정세민 서울 노원구 하계2동

1. 43호 42페이지에 실린 '출산이 경쟁력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좋았다. 요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그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알게 됐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이 소개돼 정부의 노력과 정책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2. 올해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올림픽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행사인데 정부에서만 일방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민간(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 2010년에 열리는 남아공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경기 일정, 거리 응원에 대해 다뤄줬으면 한다. 또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친절한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해 사소하지만 중요한, 생활 속에서 고쳐야 할 습관에 대해서도 더 많이 다뤄주길 바란다.

독자 의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010년 1월 13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2009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지난해 12월 열린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Me First', 즉 '나부터 실천하자'는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당시 총회장 주변에서 한 시민이 지구온난화와 맞서 싸운다는 의미로 '차가운 지구'라고 이름 붙은 조형물 옆을 지나가고 있다.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히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3대 기조·5대 핵심 과제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1월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2010년 핵심 국정과제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올해 세계 각국과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남북관계도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을 보니 새해의 시작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출근날인 1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은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 신년 국정연설의 서두를 새해 인사와 함께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2009년 우리나라의 '2대 경사'인 G20 정상회의 2010년 개최 유치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당시의 감격을 회고하며 "2009년, 우리가 얻은 것은 자신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대외 의존형인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세계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9위로 올라선 것을 축하했다. 또 인도와 유럽연합(EU) 등 거대 시장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전 세계 시장의 약 3분의 2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된 것도 2009년의 의미 있는 성과로 언급했다. 또 노사가 일자리를 나누고 공무원도 임금 동결을 감내하는 등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앞장선 것이 자랑스럽다는 감회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2010년 한국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있다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 세계는 구질서가 해체되고 신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환경의 위기가 신질서를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 국정과제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정부 될 것

또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세계는 '공멸이 아니라 공생이 가능한 경제', '탐욕이 아니라 윤리가 살아 있는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G20는 이러한 세계의 열망이 응축된 새로운 국제기구"라고 말했다.

또 녹색산업 강국을 겨냥한 한국의 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Me First', 즉 '나부터 실천하자'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녹색산업 강국을 겨냥한 한국 정부의 발전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의미에서 UAE 원전 수출

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 우리 정부의 성과이자 세계의 비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2009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새해 국정을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 수행하겠다면서, 2010년이 실질적인 선진 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해가 되도록 하기 위한 '3대 국정운영 기조'와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一勞永逸의 2010년 만들겠습니다"

3대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는 △글로벌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 아래 5대 핵심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지역발전 △정치 선진화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변화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어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 우리 정부를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을 진흥하고,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으며, 노동력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직업훈련 체제를 혁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안도 밝혔다. 대통령은 대학입시 자율화, 기숙형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등을 언급하며 새해에는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방에서도 경제회복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에 5년간 1백조원 수준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72개 시군구를 지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과 노사문화 선진화 방안도 제시했다. 올해를 정치개혁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의 해로 삼고 성숙한 정치 문화 개혁, 법질서 확립, 배타적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대내외 외교정책 기조도 제시됐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경제를 빨리 회복시킴과 동시에 최빈국을 지원하고, 신흥국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을 포함한 세계 금융질서의 개혁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1월 4일 청와대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새해에는 한중일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신아시아 외교, 아프리카 외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유엔평화유지군(PKO) 참여,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 활동 확대도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3대 국정운영 기조'와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3대 국정운영 기조는 △글로벌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 아래 5대 핵심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지역발전 △정치 선진화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변화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기를 촉구했다. 이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며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돼야 하며,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6·25전쟁 60년이 되는 올해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 용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로영일(一勞永逸·지금의 노고를 통해 오랫동안 안락을 누림)'의 자세로 일하겠다며 신년 국정연설을 마무리했다. 일로영일은 중국 북위의 농업서적 〈제민요술(齊民要術)〉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재임 중 헌신을 다해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선진 일류국가를 물려주자는 대통령의 각오가 담긴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G

글 · 최은숙 기자

AFP 연합뉴스

희망 2010 나눔캠페인



급여명세서에 담긴 1%



다문화 이주여성 창업지원으로 희망 100%



착한가게가 나누는 1%



백혈병 어린이에게 새 생명으로 미래 100%



ARS 한 통화로 전하는 1%



결식아동, 어르신에게 한끼식사로 행복 100%

당신의 1% 나눔이 누군가에겐 100% 행복이 됩니다

나눔은 행복투자입니다

행복주주가 되어주세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ARS기부 070 · 700 · 1212 기부상담 080 · 890 · 1212 www.chest.or.kr



기 획 특 집

비상경제는 계속된다

2009년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서는 데서 더 나아가 위기 이후의 미래를 염두에 둔 대비책까지 마련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지방분권, 공공 부문 및 노사관계 선진화, 교육·국방개혁, 국가브랜드 향상 등 다양한 국정운영 성과 중에서도 가장 돋보인 것은 비상경제체제. 꼭 1년 전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 '워룸(War Room)'을 설치했다. 전쟁과 다름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어진 비상경제대책회의는 G20 정상회의 유치, UAE 원전 수주 등 놀랄 만한 성과를 이끌어내며 2010년을 향한 희망의 기틀을 마련했다.



위기 극복 1년… 잘했다 대한민국 "조금만 더 힘내자"

2009년 경제위기의 격랑을 헤쳐온 대한민국호(號)에 '위기는 곧 기회'였다. 정부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국정 기조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유동성 경색으로 은행과 기업이 외채상환 능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2008년 10월 10일 로이터)

"아이슬란드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 중 아이슬란드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다."(2008년 10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

기억하는가. 바로 1년 하고도 두 달 전 해외 언론들이 전한 한국의 모습이다. 마치 한국이 부도 직전 국가라도 된 듯 몰아붙이는 해외 언론 보도를 접하며, 한국인들은 속이 타 마른침을 꼴깍 삼켜야 했다. 고금리와 대량 해고로 고통스러웠던 1997년 외환위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997년 외환위기 때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내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했다는 점 때문에 해외 언론들은 '의혹의 불씨'를 더욱 강하게 지폈다.

하지만 그로부터 반년 뒤, 한국인들은 전혀 다른 해외 언론 보도에 안도하면서도 조금은 부아가 치밀었다. 대체 반년 전 보도는 뭔가 싶어서.

"전례 없는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2009년 4월 13일 로이터)

"세계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신호를 찾는다면 바로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2009년 4월 14일 블룸버그)

해외 언론 보도의 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바닥부터 정상까지 가장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한 나라를 꼽는다면 단연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5.1퍼센트로 급락하는 위기에 내몰렸다.

이에 맞선 정부의 전략은 '신속한 선제 대응'이었다.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적에 맞서 '충격과 공포' 작전을 펼친 것이다. 2009년이 시작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1월 2일)에서 "올해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갈 것"임을 선포했다. 곧이어 그 후속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이 회



동아DB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 이 원전은 우리나라가 최근 UAE 수주에 성공한 제3세대 신형 경수로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1400)과 같은 모델이다.

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비상경제상황실을 출범시켰다. 신년 국정연설을 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1월 8일) 청와대 보안구역 지하 워룸(War Room·전략상황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정부가 체감하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위기'란 단어가 29번이나 언급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상황 악화와 더불어 나라 안에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요구가 높아졌으며, 밖으로는 '국제공조'가 외교정책의 화두로 등장했다. 또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 점증이 우려되는 등 경제위기 이외에도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버티고 있었다.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으로 요약되는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한 해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아래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살피고, 밖으로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했으며, 위기와 개혁 이후의 선진 일류국가라는 미래를 지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한국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 초기의 비관적 전망에서 벗어나 성장 전망치를 계속 높이고 있다. OECD의 경우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4퍼센트로 전망했다. 정부의 전망은 5퍼센트 내외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위기극복에서부터 서민 보듬기, 교육과 노사관계, 국가브랜드 향상까지 국정 각 분야에서 고르게 성과를 거둔 정부는 '위기'란 단어로 점철된 2009년을 마무리하며 '2009년 15대 정책뉴스'를 발표했다.

1 경제위기 적극 대응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한국은 크게 두 가지로 '핫이슈'가 됐다. 초기에는 제2의 외환위기가 우려되는 국가로, 그리고 2009년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국가로. 마치 재난영화에서 빙하기가 닥치듯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2008년 4분기 −5.1퍼센트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예산 조기 집행,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신속 대응함으로써 지난해 3분기 3.2퍼센트로 회복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같은 기간 4.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안정됐다.

2 G20 정상회의 유치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정상회의 유치에 성공했다. 세계 경제협력에 관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인 G20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G20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전 세계 교역의 80퍼센트가 G20 회원국 내부에서 이뤄지는 등 G20는 현재 명실상부한 세계 주요국 모임이다.

3 원전 첫 수출

지난해의 피날레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상외교로 거의 '손에 넣은' 프랑스를 물리치고 이룩한 4백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였다. 이는 한국 원자력 역사상 첫 수출이며,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이후 처음 산전국(産電國)으로 자리매김하는 쾌거다.

UAE 원전 수주와 더불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국제 경쟁입찰에서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둬 최근 '청정에너지'로 재평가받는 원전 시장에서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 친서민정책

지난해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경제위기에 처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데 역점을 뒀다. 서민가계 통신비 부담을 20퍼센트 덜어주었고,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마련했다. 저신용 영세 사업자에 대해 저금리 소액대출을 해주는 미소(美少)금융,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서민을 보듬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들이 펼쳐졌다.

5 DAC 가입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전환한 사례.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은 지 50년 만의 일로, 우리 국민이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굿 뉴스'였다.

6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지난해 11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 감축한다는 야심 찬 정부 목표가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1997년)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가 아니었는데도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기후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국제기구와 차기 총회 유치를 제안하는 등 환경보호 실천에 있어 '나 먼저(Me First)' 정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7 4대강 살리기 착공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관리와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 다목적 용도를 가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지난해 6월 수립돼 각 강별 개발 청사진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재원조달 분산과 입찰, 보상 등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전체 92개 공사 중 42개(턴키 16, 일반 26) 공사가 착공됐다.



일러스트 · 남동윤

8 미디어산업 선진화

지난해 7월 방송과 신문, IPTV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1980년대 이후 존속돼온 낡은 규제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각 부문 간 진입장벽을 낮춰 미디어산업 선진화가 가능해졌다. 또 IPTV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돼 학교와 병영 등을 대상으로 IPTV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9 공공 부문 선진화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기업 통합으로 32개 공기업이 14개로 줄었다. 또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4개 기관장이 해임되고 17개 기관장이 경고를 받는 등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이뤄졌다. 농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해(6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12월) 등 공공 부문의 규제개혁 조치도 취해졌다.

10 지방 재정 확충

정부의 지방 정책도 성공적인 뉴스 중 하나다. 지난해 말 발표된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 결정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8월)을 바탕으로 한 결실이다. 부가가치세 5퍼센트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향후 10년간 3조원에 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비중을 뒀다.

11 노사관계 선진화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13년간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12월) 쌍용차와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으로 무관용 원칙을 관철했다. 반면 실업급여 지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 고용 친화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12 FTA 확대

2007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출범 2년여를 끌어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7월 타결돼 가서명을 마쳤다(10월).

또 FTA와 동급인 한·인도 CEPA 타결(8월) 등의 해외시장 개척도 큰 성과였으며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협상을 시작하는 등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크게 확장됐다.


동아DB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7일 엄마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의료원을 찾은 어린이.

13 신종플루 선제 대응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첫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신종플루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 대응으로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단계는 지난달 1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아졌다. 정부가 계속 전염병 위기단계를 상향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개인위생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항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확보에 나서는 등 '신종플루 대확산'을 막기 위한 총체적 노력을 펼친 결과였다.

14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방과후 학교 활성화, EBS 강의와 IPTV 활용 등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추진했다. 또 기숙형고, 자율형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와 교원평가제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수 과목을 축소하고 창의와 인성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 노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15 그랜드바겐 구상

핵 포기와 개방, 경제 지원을 연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 '비핵, 개방, 3000', 일명 '그랜드 바겐' 구상을 일관되게 추진해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베트남과 중국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하고 신종플루 치료제를 긴급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은 지속됐다.

2009년 15대 정책 뉴스 가운데 '넘버원'이 '경제위기 적극 대응'인 이유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불리는 상황에서도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경제적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경제위기 상황에선 수출마저 여의치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는 2009년 12월 '금융위기 1년 평가와 위기 이후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 외환위기와 달리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현상을 수반함으로써 수출 증대를 통한 위기극복이 용이하지 않게 됐다"며 "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충격' 속에서 '비상경제정부'가 출범했고, 비상경제정부의 '전략상황실' 격인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난해 모두 40회가 개최됐다. 이는 대통령이 가장 많이 주재한 회의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열정과 의지를 바탕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의 '허브'가 되어왔다.

올 상반기까지 운영이 연장돼 다시 한 번 대한민국호가 비상(飛上)할 도약대가 되어줄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거둬온 결실, 새해의 각오를 다지는 마음으로 돌아보자. G

글 · 박경아 기자

청년실업 줄이기 총력 33만명에 '취업' 선물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8년 12월부터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대량실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고용위기를 극복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취업난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비상경제 대책회의 1년

일자리 창출

#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9년 4월 입사한 청년인턴 20명 전원을 올해 1월 중순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다. 인턴 수료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한 것은 민간과 공공 부문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 공사는 당초 인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무성적에 따라 12~16명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8개월 간 정보기술(IT) 기획실과 광주·전남지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이승호(28·국민대 경영학과 졸) 씨는 "대학 졸업 후 2년 만에 취직이 돼 그 기쁨을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전공을 살려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주택연금이지만 어느 부서에 배치되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부지게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변형섭 홍보팀장은 "이미 지난해 청년인턴을 선발할 때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심사 등 정규직과 동일한 채용 절차를 거친 데다 8개월간의 인턴십을 통해 역량과 적성을 충분히 검증했다"며 "모든 인턴사원들이 실무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습기간 적용 없이 곧바로 현업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2009년 여름까지만 해도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이애진(40) 씨는 현재 '중부에너텍'의 정식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결혼 후 16년 동안 살림과 육아에만 몰두하던 그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 곳은 여성부와 노동부가 공동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였다.

"지난해 우연히 지역신문을 보다가 충북새일센터의 캐드(CAD) 사무원 교육생 모집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료교육이라서 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면접을 봐야 한다기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교육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단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이 씨는 그때부터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과정에 임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거듭한 덕분에 2009년 6월 25일 수료식 때는 고대하던 자격증도 손에 넣고, 우등 수강생에게 수여하는 상품까지 받았다. 얼마 후 그는 교육과정을 통해 쌓은 한글타자, 엑셀, 파워포인트, CAD 실력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무기로 당당히 취업 문턱을 넘었다.

"모두 새일센터 덕분이에요. 제 삶에는 머피의 법칙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매일 행복한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울인 다각적인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찬 삶을 안겨줬다. 이처럼 사회 각계의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를 유도해 최악의 실업사태를 막아낸 선봉장은 바로 2009년 1월부터 대통령 주재로 열리고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2008년



동아DB

1월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신년 시무식에 참석한 청년인턴 20명이 직원들 앞에서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말부터 고용 상황이 악화됐을 때도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집중한 일자리 대책은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2009년 초에는 기업의 인력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데 역점을 뒀다. 2009년 1월 29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조정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2월 19일에 열린 8차 회의 때는 공공 부문이 일자리 나누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대졸 초임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기여했다. 2009년 12월 말까지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기업은 1백인 이상 기업 6천7백81개 중 29.7퍼센트인 2천12개에 달한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의 고용유지 효과는 최소 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인턴 등 청년 고용대책을 강화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뉴스타트 프

동아DB



정부는 지난해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자리 사업 규모 확대를 기반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해 취약계층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사진은 대구 서구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전거 기술자들.

로젝트, 해외 취업연수 등의 청년 고용대책을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 총 1조2천1백98억원을 들여 33만명에 대한 고용지원 계획을 시행했다. 이 같은 집중적인 일자리 제공은 청년층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난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고용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도

또한 2009년 1분기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서민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자 비상경제대책회의는 4조2천억원의 긴급 추경안을 마련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추진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저소득층 집수리, 희망교복 제작 등 희망근로사업으로 취약계층 25만명에게 추가 일자리가 제공됐다.

미래에 대비한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강화, 실직자의 생계 지원 확대도 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간병인, 산모 도우미, 아이 돌보미 등 여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여성 특화형 전문직종 훈련을 확대해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왔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디딤돌 일자리를 제공하고 72개소의 새일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해 직업 상담부터 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실직자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해 재직 고령자 7천여 명의 고용이 연장됐으며 약 25만명의 실직자가 재취업의 기쁨을 누렸다.

또 고용 취약계층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7만 개로 늘고, 사회적기업도 2백66개로 확대됐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시스템도 개선됐다. 정부의 고용지원센터 알선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3만2천명이 취업했으며 1천4백여 회의 채용 행사를 통해 3천4백여 명이 직장을 얻었다.

정부는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소·벤처기업 6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워크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자는 넘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던 미스매치 현상도 진정시켰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인센티브(12개월간 30만원)도 한몫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 강화로 청년층의 실업난을 완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11월까지 2만6천명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6백60억원)을, 2만4천명에게 취업장려수당(77억원)을 지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서민경제가 美少 짓는 그날까지 친서민정책은 계속된다, 쭉~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추진한 친서민정책 중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미소금융 출범과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이 대표 성과물로 꼽힌다.

비상경제 대책회의 1년
서민생활 안정

#1 구현자(가명·53·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씨는 신용불량으로 2008년에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실업자인 남편, 아들(지적장애 3급)과 함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구 씨는 방문판매업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느라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구 씨는 2009년 8월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신의 집 근처에 설치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한 후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동상담센터는 각종 봉사단체와 연결해 구 씨네 집을 수리해주고, 밑반찬과 생필품을 지원했다. 구 씨 남편에게는 직업훈련 기회를 줬고,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를 연결해줘 구 씨의 아들이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과의 서선숙 씨는 "이동상담센터가 장애인, 저학력자 가구를 직접 찾아가 돕는 '움직이는 복지상담소'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2009년 정부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한 사례 2백43만2천 건 중 하나다.

#2 김내현(54·서울 종로구 가회동) 씨는 2009년 11월 서울 서초동의 전용면적 74제곱미터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당첨됐다. 청약저축 장기 불입자에게 분양되는 일반 공급분으로 부모를 여읜 후 줄곧 혼자 살아온 김 씨가 난생 처음 마련한 집이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김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천만원짜리 전세 단칸방. 그는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서민을 위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덕분에 진짜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며 기뻐했다. 김 씨가 지난 94년부터 불입한 청약저축액은 1천6백만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10년 넘게 부어온 청약저축 통장만큼은 보물단지처럼 갖고 있었기에 생긴 행운이다.
2억5천여 만원의 분양금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생애 최초 주택 마련자에게 1억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조건도 다른 분양아파트보다 훨씬 유리하다. 김 씨처럼 2009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당첨된 경우는 1만4천2백95가구다.

2008년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의 한파는 서민들에게 먼저 다가왔다.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빈곤층은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에 2009년 한 해 동안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책을 추진하기에 분주했다.

2009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추진한 다양한 친서민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지원 △한시생계보호 등 일시적 지원 대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서민의 자활을 지원하는 '미소(美少)금융' 도입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등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민생안정지원본부 아래 시도 민생안정지원단과 시군구 민생안정추진단을 확대 개편해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찾아가는 민생안정지원팀을 운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09년에 총 2백43만2천 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수급자 편입(8만1천 건), 긴급복지 지원(9만3천 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안내(12만6천 건), 지자체 지원(87만8천 건), 민간 후원 연계(31만1천 건), 기타 법령 지원(94만4천 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129보건복지콜센터의 기능을 복지에서 사회안전망 전반으로 확대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 1년 점검회의에서 '봉고차 김 씨 모녀'의 자립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닦고 있다.

둘째, 2009년 1분기에는 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한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 조치로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46만 가구가 월 12만~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한시생계보호자금을 받았고, 생계비 대출을 원하는 20만 가구가 연 3퍼센트의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로 총 8백4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급식 혜택이 확대돼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무료급식 학생 수가 학기 중 62만명에서 73만명, 방학 중 29만명에서 54만명으로 늘었다.

셋째, 자활 의지가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이 본격 가동됐다. 2009년 12월에는 미소금융중앙재



조영철 기자

서민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인 미소금융재단이 지난해 말 대출 상담을 개시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우리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단 소속 7개 지점이 개설됐고, 6대 그룹 및 5개 은행이 별도 설립한 11개 미소금융재단이 활동을 개시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전국에 20~30여 개의 전략 거점 법인을 설립하고, 향후 2백~3백 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2년 동안 약 7백11억원의 소액 대출을 실시했는데, 본격적인 미소금융재단 가동과 함께 출연금 규모가 향후 10년간 2조원대로 늘어 서민들이 소액 대출을 받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넷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가을 첫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50~70퍼센트 싸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10년 임대), 장기전세(20년 임대), 장기임대(3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내 집 마련 대책으로 평가받은 보금자리주택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2009년 10대 히트상품'과 각 일간지가 발표한 '2009년 부동산 10대 뉴스'에 선정될 만큼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담보·무보증 '미소금융' 본격 시동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1백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당초 2018년 개발 계획보다 6년 앞당긴 2012년까지 3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 강남과 서초,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곳에 1차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첫 수혜자는 2009년 11월에 시범지구에서 사전예약 방식 청약을 통해 선정된 1만4천2백95가구. 다(多)자녀 1천3백63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 2천8백52가구, 노부모 부양 1천2백44가구 등 내 집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영세 자영업자 경제 회생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서민층에게 도움의 손길이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친서민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에 18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내곡지구, 부천옥길지구 등 2차 보금자리지구 6곳에서 3만9천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된다. 이 중 공공분양 물량의 80퍼센트인 1만5천여 가구가 2010년 4월에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된다. 올 하반기에는 2009년 10월 분양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공공분양 물량 2만4천63가구 중에서 사전예약 공급분을 뺀 나머지와 사전예약에서 자격 미달로 분양이 취소된 물량이 본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이 밖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서민층에게 도움의 손길이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친서민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했다. 2009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강화된 서민정책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제 회생 지원 △고금리 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한 '사금융 애로 종합지원센터' 설립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추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0~4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지원 서비스 확대 △중증 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대와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등이다. G 글·최은숙 기자

부도 中企 127개 줄이고 창업 환경 세계 53위로 껑충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 절차도 간소화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전망(BSI)은 2009년 1월 56에서 11월 말 89로, 소상공인의 BSI는 2009년 1월 38.7에서 12월 74.8로 오르는 등 전반적인 경기 동향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비상경제 대책회의 1년

중기·소상공인 지원

#1 제철·철도·건설 분야 등에 특수 화학제품을 공급해오던 슈가버블은 2001년 소비재 쪽으로도 눈을 돌렸다. 사탕수수와 올리브유로 만든 천연성분 세제 슈가버블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안전마크를 획득했고,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산하기관 시험 결과 80개 항목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주방세제, 과일·채소용 세제, 세탁세제, 주방 및 욕실 세정제 등 슈가버블의 모든 세정제는 무독성, 무자극성, 무공해의 3무(無)가 특징이다.

하지만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슈가버블도 자금난에 봉착했다. 소비재 사업을 하다 보니 홍보나 마케팅은 물론 수익을 내기 위한 진행비가 적지 않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소재춘(50) 사장은 이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3억원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다고 말했다.

"일반 금융권의 경우 눈에 보이는 담보가 없으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유망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자금을 지원해주므로 경영에 필요한 자금 걱정 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은행 이율보다 저렴한 정책자금을 받음으로써 수익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슈가버블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규모를 크게 늘렸다. 사진은 슈가버블 포항공장 생산라인.

산업용 세제와 가정용 세제뿐 아니라 광촉매를 이용한 항균칫솔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슈가버블은 P&G와 같은 글로벌 생활용품 회사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2 "대출을 받고 새마을금고를 나와 하늘을 봤는데 그렇게 맑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면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구나, 희망이 생겼어요."

신영수지 박정교(49) 사장에게는 고물이 다 돈이다. 박 사장은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 3, 4시까지 버려진 가구, 플라스틱, 고철 등을 하나하나 정리한 후 고물더미 옆 비닐하우스에서 서너 시간 눈을 붙이고 1톤 트럭을 가지고 고물을 수거하러 다닌다. 처음에는 무작정 동네방네 다녔지만 지금은 여기저기서 물건을 실어가라는 전화가 꽤 많이 온다.

박 사장 부부가 지금처럼 거래처를 여럿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중소기업청의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으로 받은 대출이 힘이 됐다. 2005년부터 고물을 줍기 시작한 이들의 성실함과 사람됨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물건을 주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었다. 여윳돈이 있으면 더 많은 거래처와 물량을 확보해 구멍가게를 넘어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련만 돈이 문제였다. 생각다 못해 은행에 찾아갔지만 대답은 '노(No)'였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가 정부에서 보증을 서는 유동성 특례보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 사장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하면서도 '누가 고물을 보고 대출을 해줄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1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돈으로 사세를 확장해 이제는 2백 평, 7백 평 창고 두 군데와 수십 곳의 거래처를 갖게 된 박 사장은 희망을 가르쳐준 세상이 고맙다고 말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 혹독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부도업체 수가 증가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책자금의 규모를 늘려 조기 집행하고 집행 절차도 간소화했다. 정책자금은 2008년 3조2천억원에서 2009년 5조9천억원으로 늘렸고,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2백~5백 퍼센트에서 3백~6백 퍼센트로 완화했으며, 심사 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또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만기도래 보증 전액을 만기 연장했으며, 은행에도 대출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금융사들이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고 부도업체 수가 급



조영철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사업자 등 서민층의 여건에 맞게 정책금융을 다양화하고 있다.

융위기 이전 수준을 밑도는 등 중소기업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2009년 1월 2.37퍼센트에서 11월 말 1.72퍼센트로, 신용위험지수는 2008년 12월 말 56에서 2009년 11월 말 31로, 부도업체 수는 2009년 1월 2백62개에서 11월 말 1백35개로 줄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전망(BSI)은 2009년 1월 56에서 11월 말 89로 올랐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에 총 94조원을 공급하고, 보증 만기 연장과 패스트트랙은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 만기 연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사업 조정제로 골목슈퍼 살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를 2008년 6조원(31만명)에서 2009년 11조2천억원(66만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노점상, 무점포 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31만명에게 3조6천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동향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소상공인의 BSI는 2009년 1월 38.7에서 12월 74.8로, 전통시장의 BSI는 2009년 1월 49.4에서 11월 72.7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정부는 또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렸다. 2.0~3.5퍼센트 수준이던 전통시장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하를 유도해 2.0~2.2퍼센트로 개선했다.

또한 금년 1분기 내에 전통시장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대형마트 수준인 1.6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추가 인하되고, 기타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대형 백화점 수준인 2.0퍼센트~2.4퍼센트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백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전국통합 상품권을 발행하고, 1천7백49억원을 지원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영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2백87억원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였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규모 슈퍼마켓의 유통물류 개선 및 개별 점포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소매업 사업 조정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2년까지 골목슈퍼 1만 개를 스마트숍으로 개량하고 지역별 센터와 소매점 간 공동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최저자본금제와 채권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은 세계 1백26위에서 53위로 크게 향상됐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집에서도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 창업 시스템이 열린다. G 글·이혜련 기자

수출 세계 9위… 실물경제 회복

구조조정, 재정 조기집행으로 '안팎 실속'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데는 재정 조기 집행, 선제적 금융시장 안정 조치와 기업 구조조정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큰 힘을 발휘했다. 이를 통해 2009년 세계 수출 9위,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와 대형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비상경제 대책회의 1년

경기 활성화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에 전기 대비 2.6퍼센트 성장한 데 이어 3분기에는 3.2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9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2분기까지 마이너스에 머물다가 3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 국내 경기가 국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경기회복에는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시장 안정 조치 등의 힘이 컸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차관은 2009년 11월 17일 재정 조기 집행 추진실적과 2010년 재정 집행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재정 조기 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해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08년 말 11조원의 수정예산 및 2009년 28조4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유지·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집중 지원했다. 특히 본예산 기준으로 연간 예산의 64.8퍼센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을 조기에 가시화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연간 5퍼센트 안팎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의 60퍼센트 내외를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 계속사업 등 민간 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앞장… 부실 확산 차단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9년 1~3월 건설·조선사, 4~6월 해운사와 개별 대기업, 6~12월 중소기업 등 순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제에 주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부실 확산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5백91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세계 9위에 진입하고 무역흑자도 4백1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아DB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주가와 환율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09년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사상 최대인 4백63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로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2백억 달러 규모의 UAE 원전 4기 건설계약에다 향후 60년간 원전 운영 지원으로 약 2백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송현도 사무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회사(PEF),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적극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높였다. 은행자본확충펀드 4조원을 지원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 5조원과 선박 18척을 매입했다. 그 결과 은행부실채권 비율은 2009년 6월 1.50퍼센트에서 11월 1.44퍼센트로 떨어지고,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27조3천억원, 구조조정 지원에 7조3천억 등 총 34조6천억원이 실물경제 회복에 활용됐다.

아울러 수출과 투자 위축에 대응해 수출보험 확대,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 등의 총력 수출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설비투자펀드 조성, 창업절차 간소화 등 기업환경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으로 수출은 빠르게 개선됐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덕분에 2009년 수출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9위에 진입하고, 무역흑자도 4백1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도 2백억 달러 내외의 무역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사상 최대인 4백63억 달러에 달했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플랜트 발주 연기와 취소가 잇따라 2008년 동기 2백26억 달러에 비해 67퍼센트나 감소한 74억 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중동지역의 발주 확대 기회를 잘 이용한 결과 3분기에 1백60억 달러, 4분기에 2백29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분기별 사상 최대 수주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지식경제부 박덕렬 플랜트 팀장은 "올해도 대형 프로젝트 입찰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주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상 첫 해외 플랜트 5백억 달러 돌파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로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2백억 달러 규모의 UAE 원전 4기 건설계약에다 향후 60년간 원전 운영 지원으로 약 2백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정부는 UAE 원전 수출을 바탕으로 원전의 미자립 기술을 개발하고 원자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2030년 세계 3대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플랜트는 전력, 석유, 가스, 담수 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하거나 공장을 지어주는 산업을 말한다. 해외에서 플랜트를 수주하면 설비와 부품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 중 절반 정도가 수출로 연결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UAE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 '사상 최고'

따라서 정부는 플랜트산업을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3월 중에 플랜트기자재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해 국산 기자재 사용률을 높이고, 플랜트학과를 신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현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를 독립국가연합(CIS·구소련의 후신으로 탄생한 11개국) 지역에 신설하여 해외 플랜트 5백억 달러 수주 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건설도 사상 최대인 4백91억 달러를 수주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신규투자 국가의 발주 물량이 감소하자 정부는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현지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기업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세계적인 투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009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8년에 비해 1.9퍼센트 줄어든 1백1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외국인 투자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와 강연 등 외국인 투자가 모임에 참석해 한국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키로 하는 한편 중동 국부펀드, 중화자본 등의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는 녹색성장·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중점 유치 분야를 선정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 박순기 투자정책과장은 "G20 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투자포럼, 투자환경 설명회, 투자 상담회 등을 개최해 대한(對韓)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동아DB

"위기 속에서 오히려 경쟁력 강화"

2009년 정부는 국가경제 전반의 침체를 막기 위해 자동차, 해운, 조선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 확산을 차단했다. 또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비상경제 대책회의 1년
산업경쟁력 강화



조영철 기자

지난해 정부의 노후 차 교체 지원으로 자동차 내수 판매는 2008년보다 18.7퍼센트 늘어난 총 1백37만 대를 기록했다.

회사원 배영민(49) 씨는 2009년 11월 정부의 노후 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새 자동차를 샀다. 1993년식 엘란트라를 투싼으로 바꾸면서 1백50만원가량 세금감면 혜택을 봤다. 배 씨는 "정부 덕에 18만 킬로미터를 달린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꾸고 기름값도 월 5만원가량 줄었다"며 만족해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2009년 직간접 고용 규모가 1백만명이 넘고, 전후방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안정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000년 이전 등록차량을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노후 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판매·등록된 신차는 2009년 12월까지 총 38만1천8백7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후 차 교체 지원 및 각 업체의 적극적인 신차 출시로 2009년 자동차 내수 판매 규모는 2008년보다 20.7퍼센트 증가한 1백39만3천9백99대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은 2009년 2분기의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3퍼센트 중 0.8퍼센트분 정도가 자동차 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산하는 등 노후 차 교체 지원은 자동차산업 경기뿐 아니라 지난해 국민경제 전체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후車 교체하면 세금 감면… 내수 경기 부양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및 국내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수출과 생산이 급격히 위축됐다. 특히 고용 규모가 크고 수천여 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린 자동차·조선·해운산업 등의 위기는 국가 경제 전반의 추가 침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각 산업의 활성화 및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산업은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조선산업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2008년분의 10퍼센트에도 못 미칠 정도였다. 국내 신

규 수주가 사실상 중단되고 선수금 수령액이 감소하면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난에 직면했다. 정부는 부실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우량 조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경쟁력 유지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조선산업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 1위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올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해운산업도 2009년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해상운임이 폭락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해운세제 정비 등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다단계 용대선(傭貸船·무등록업체가 선박을 빌려 이를 다시 빌려주는 배) 정리로 연쇄부실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했고, 국내 해운사들은 회사채 발행과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손실 폭을 줄일 수 있었다.


동아DB

부실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우량 조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경제위기 속에서도 조선산업은 세계 1위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했다.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각 산업의 활성화 및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산업은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10대 핵심 소재 개발에 1조원 투입키로

정부는 또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도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산업 부문의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 확충, 경상수지 개선에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못지않게 위기 이후 성장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09년 5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와 알선행위가 허용돼 국내 병원에 내원하는 외국인 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33.6퍼센트 증가했고,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1조9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수출금융지원도 2천4백27억원에서 9천9백96억원으로 늘어나 서비스기업의 자금 경쟁력이 향상됐다. 정부는 올해 사회 서비스,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09년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 수출은 사상 최대치인 무역수지 5백1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6년 이후 부품, 소재 무역수지 흑자가 전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를 상회하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부품, 소재 중심의 선진국형 무역구조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품 분야가 4백2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전체 흑자의 82.4퍼센트를 차지했고, 소재 분야 무역수지 흑자는 90억 달러로 부품 분야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10대 핵심 소재 개발에 1조원을 투입하고 수입 규모가 큰 20개 핵심 부품과 소재를 2012년까지 자립화하도록 부품, 소재 경쟁력 제고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 융합으로 확대되는 장비시장 진출을 위해 방송장비 고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술개발 등에 1천8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송장비의 해외 수출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0일에는 한국계 몽골 현지 법인인 울란바토르DMB(UB DMB)가 몽골에서 T-DMB(지상파 DMB·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국제표준에 반영한 모바일TV 규격) 사업권을 따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12월 1일 몽골 방송장비 로드쇼를 열어 T-DMB를 포함한 방송장비 전반의 몽골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지식경제부 양병내 정보통신산업과장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DMB 4천8백21억원, IPTV용 셋톱박스 17억원, 휴대용 방송장비 1백96억원 등 총 5천33억원의 수출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지식경제부는 3D 방송장비 개발 추진과 우크라이나 등을 대상으로 방송장비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기업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지식경제부는 구조 고도화 사업 시행으로 4조원의 생산, 2조4천억원의 부가가치, 3만3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로 부상할 전기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 국내 소형차의 10퍼센트를 전기자동차로 보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녹색성장 인프라로서 스마트그리드 도입 기반을 마련해 올해부터 제주 실증단지 사업과 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G

글 · 이혜련 기자

현장으로… 현장으로!

경기회복 일등공신 '비상경제대책회의' 1년을 돌아보며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난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가동된 것이 바로 '비상경제대책회의'다. 비상경제대책회의 상정 안건을 통해 지난 1년을 뒤돌아봤다.

비상경제 대책회의 1년
국격을 높이자



동아DB

지난 1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1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청와대 워룸에서 열렸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연장돼 지난해처럼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여러 해법들을 제시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불안이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보호 신청으로 극에 달하면서 우리 경제를 압박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두 팔을 걷고 나섰다. 2009년 1월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면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정책 컨트롤 타워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제안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국정 현안을 챙겼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각별하다. 내각이 국정을 맡고 대통령이 후선에 있는 느슨한 형태로는 경제위기를 풀어낼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일이다. 2009년 1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비공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민생안정 지원, 재정 조기 집행 등의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후 2009년 12월 24일 제40차 회의 개최까지 모두 7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치밀한 경제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불어넣을 '일자리 나누기 대책'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 등의 안건을 선정했다. 경제 사정이 특히 좋지 않았던 2009년 1분기에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했다. 2분기에는 위기에 처한 해운, 조선 등 산업별 위기 극복 및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고, 1분기에 결정한 일자리·복지·영세 소상공인 대책 등 서민 관련 대책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동아DB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됐던 미소금융이 지난해 12월 삼성미소금융재단의 출범으로 전격 시작됐다. 가계 경제를 돕는 미소금융제도는 앞으로 많은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반기 들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친서민 대책은 물론 위기 이후를 대비한 산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재단의 미소(美少)금융 등이 하반기에 열린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안건들이다. 이와 같이 핵심 과제로 선정된 친서민대책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덜어줘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40차례에 걸쳐 열린 회의는 정부,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장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신념 때문에 회의는 민생 현장에서 자주 열렸다. 129 보건복지 콜센터, 미소금융재단 등 서민정책 집행 현장을 비롯해 기업 활동이 이뤄지는 사업 현장과 정책 수립을 돕는 집행부서 현장에 이르기까지 13곳의 '현장'에서 회의가 열렸다.

대통령도 발로 뛴 한 해… 서민생활 안정 큰 도움

1년 동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진두지휘한 이 대통령은 5대 중점 사항을 강조했다. △경제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서민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중시한다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획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효율성을 요구한다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면서도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간 연장돼 운영된다. 경제회복이 가시화되긴 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회의는 예전처럼 매주 열리며, 이 중 한 차례는 고용에 중점을 둔 '국가고용전략회의'로 운용된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비상경제정부 컨트롤 타워 '워룸' 24시

음지에서 일하며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무렵. 청와대 보안구역 내 지하벙커 워룸엔 긴장감이 감돈다. 회의실 중앙의 대형 테이블 위로 회의 자료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올라온다. 한쪽 벽면은 '위기를 기회로!'란 노란 글씨가 적힌 푸른색 천이 장식하고, 건너편 벽으로 널찍한 세계지도가 보이는 회의실이다. 곧 문이 열리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 정부 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선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은 대개 오전 9시 무렵이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일종의 의결기관입니다. 해당 부처에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등 안건을 제출하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곧장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안건이 올라가면 결론이 나도록 '신속한' 워룸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이수원 비상경제상황실장은 "대통령께서 정책 결정에 현장과의 교감을 가장 중시한다"며 "이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에게 발언 시간을 많이 준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일일이 현장 목소리를 챙겨 듣다 보니 제한된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부품 · 소재산업 대책(35, 37차 회의 안건)이 그런 경우. 시간이 부족한 탓에 참석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자 대통령은 추후에 같은 안건을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이 실장은 "비상경제정부의 의미는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국정 현안을 챙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의 맨 앞에 나서는 것인 만큼 긴장감도 높고 대통령 일과 중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비상경제상황실이 작성하는 일일 · 주간 단위 경제상황 보고서는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내지는 첫 보고서다. 대통령 일정표에 매주 목요일 아침 일정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선점하고 있다고 한다.

'워룸을 지키는 사람들'은 비상경제상황실장까지 모두 14명. 나라의 비상경제 운영을 지원한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고충도 뒤따른다. 사무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 햇빛을 보지 못해 '광합성' 할 기회가 적다는 점. 고충 해결을 위해 '워룸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 서울 양재천변에서 마라톤을 하며 체력을 비축한다. 울트라 마라톤(1백 킬로미터) 2차례, 풀코스 완주를 15차례나 한 '마라톤 마니아' 이 실장이 주도하는 '광합성용 마라톤'이다.


조영철 기자

이수원 비상경제상황실장.

이 실장은 말한다. "경제위기 극복과 마라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이 실장과 '워룸 사람들의 마라톤'은 2010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회의 마라톤'도, 또한 '양재천변 달리기 마라톤'도.

글 · 박경아 기자

숫자로 돌아보는 비상경제 1년

OECD 중 경제성장률 1위 달성

글로벌 경제위기가 일파만파 전 세계로 번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긴박해졌다.
제2의 외환위기설이 불거지는가 하면 추락하는 수출, 얼어붙은 내수로 한국경제는 궁지에 몰리는 듯했다.
하지만 떨치고 있어났다. 한국이었기에 가능한 일들, 숫자로 돌아본다.

비상경제 대책회의 1년
숫자로 본 한국경제

1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롤러코스터' 정점과 바닥을 가리키는 숫자다.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신속하게 재정 확대 정책으로 대응한 우리나라의 200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3.2퍼센트(전년 동기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1위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급속한 경기위축으로 2008년 4분기에 −5.1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OECD 순위는 29위, 꼴찌를 겨우 면했다.

2.00 ▸

2009년 1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초저금리'인 2.00퍼센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2008년 9월) 이후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차례 인하돼 5.25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낮아졌다. 이러한 초저금리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과 가계,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해 극심한 신용경색 해소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9 ▸

한국의 2009년 세계 수출 순위.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 세계 10대 무역 강국에 진입한 기록이다. 2008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7.9퍼센트까지 추락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기업들의 신규시장 개척 노력과 정부 지원에 힘입어 2009년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9년 1~11월 기간 중 우리나라 무역흑자는 4백11억5천만 달러였으며 2009년 한 해를 결산하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8 ▸

전 세계가 마치 도미노처럼 금융위기 폭탄을 맞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해외를 방문해 개최한 정상회담 숫자. 월 평균 3회가 넘는다. 대통령은 총 12차례 해외 출장길에 올라 17개국을 방문해 38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신아시아외교 실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등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49.7 ▸

2008년 말과 비교한 2009년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독일은 23.9퍼센트, 영국은 22.1퍼센트, 미국은 18.8퍼센트, 일본은 19.0퍼센트 상승률을 기록해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1,534 ▸

2009년 월평균 달러 환율이 최고를 기록한 2월 말의 달러 환율은 1천5백34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일부 외신이 한국의 제2 외환위기설을 제기해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





일러스트 · 이우정

융위기 직전 1천1백원대에서 2009년 3월 1천5백원대까지 오른 것이다. 이에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3백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 외화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되찾아 12월에는 1천1백30~1천1백60원 선을 기록했다.

100,000

임진왜란 전 율곡 이이가 주장한 '10만 양병설'의 후신 같은 정책이 2009년 정부가 마련한 '글로벌 청년리더와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정책이다. 2009년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의 하나로 각각 10만명씩 글로벌 청년리더, 미래산업 청년리더 양성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381,875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녹이기 위해 2009년 5~12월 정부가 내놓은 '해빙용 불쏘시개' 정책인 노후차 세제감면 조치 혜택을 받고 팔린 자동차 숫자. 이 기간 중 정부는 노후차량 교체 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각각 70퍼센트 감면하고 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완화했다.

400,000

경제 한파 속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2009년 6~12월 한시생계보호제도를 통해 지원한 가구 숫자.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2008년 12월 1백53만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2009년 9월 1백57만7천명까지 증가하다 11월 1백57만명으로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한시적인 대책은 마치겠지만 기존의 복지지원 대책과 지자체, 민간 지원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49,100,000,000

우리나라의 2009년 해외 건설 수주 규모로, 지난 12월 30일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인 4백91억 달러 수주를 달성했다. 이는 한국기업이 가진 기술력에 대한 신뢰와 현지 로드쇼, 플랜트 인재 양성과 자금 지원, 보험료 할인 등 정부의 노력이 만들어낸 시너지효과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28,400,000,000,000

개미나 마켓에만 '슈퍼'가 있는 게 아니다. 2009년 4월 정부가 짠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4천억원의 '슈퍼 추경안'이었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재정정책의 초점을 두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만들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바란다

"일자리 늘리고 FTA 확산해야"

비상대책회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을 견인해왔다. 비상대책회의가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 등 최우선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비상경제 대책회의 1년 전문가 제언

정부균 국제금융센터 소장

"상반기 연장 운영 적절… 대외 위험요인 대응 필요"



세계경제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바이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올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등 국정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각종 대외 위험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동유럽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의 자산버블 붕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심화 등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주요국의 출구전략 움직임 등에 따라 국제 환율이 급변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안정적 관리, 외국인 장기투자 확대 도모 등 원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두바이 사태 이후 대외차입이 많고 재정이 열악한 국가들의 소버린 리스크(국가의 채무상환불능 혹은 부도위험)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위험 노출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대책을 논의하기 바란다. 이러한 논의를 포함하여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일로영일(一勞永逸)의 한 해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원한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출구전략 시점 논의… 중·장기 정책 과제 상정돼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2009년 1월 정부가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해 매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가시화한 만큼 앞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내용과 형식은 다소 달라져야 할 것이다.

먼저 그동안 대책회의에서 결정해 시행한 정책의 집행 과정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미흡하다면 즉시 보완책을 모색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본격적 시행이 불가피한 출구전략의 시점 및 방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 아직도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찰 및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위기극복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기금 개혁, 녹색에너지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효율적 지원 등과 같은 중·장기 정책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상정됐으면 한다.

또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대책회의 장소를 청와대 지하벙커인 '워룸'에서 지상의 일반 회의실인 '회복실'로 옮겼으면 한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6월 2일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식에서 각국의 통상장관이 서명하고 있다.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 안정화 이루고 FTA 등 개방 노력 지속"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확산시키고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일자리 확충의 핵심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교육제도 개선 등과 같은 해묵은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각계의 이해상충 등으로 이 과제들을 풀기가 어렵더라도 일자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

위기 재발을 막고 위기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아직 세계적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최근 두바이 사태에서 보듯이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다. 따라서 기업, 금융기관,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잠재 부실 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특히 한중일 3국 간의 FTA도 적극 검토해볼 시점이다. 아울러 경쟁 제한적 규제와 제도를 세밀히 점검하고 그 철폐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소기업, 자영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구조조정도 유도해야 한다. 제도 전반의 투명성 제고 등 사회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 시스템의 정비 위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 약속된다.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내수산업 육성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 조속히 해야"



동아DB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커다란 업적이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는 우리 경제구조가 제조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자동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성장은 이뤄지지만 고용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을 늘리려면 노동집약적인 내수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서비스산업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도 열악하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하다. 규제 완화와 시장경쟁을 통한 서비스 상품의 고급화와 더불어 의료, 교육, 보육, 노인복지 등의 사회적 서비스는 상당 부분 정부 주도하에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비상경제조치의 완화, 즉 출구전략도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조속히 해야 한다.

미래의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재정사업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재정계획은 적어도 향후 10년은 내다보고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

4대강 살리기, 기대됩니다

홍수와 가뭄, 오염으로 얼룩졌던 4대강이 다시 태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 마음 놓고 수영할 수 있는 깨끗하고 좋은 물,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자연을 만들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경택 기자

한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 개선과 재해 방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 국토를 '금수강촌'으로 일구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92개 공사 중 턴키공사 16건과 일반 공사 26건 등 1단계 사업 42건을 착공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6월에 수립됐다. 마스터플랜은 물 부족에 대비한 풍부한 수자원 확보, 유기적 홍수방어대책 마련, 수질 개선 및 생태 복원, 지역발전 등 5개 실천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무렵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대책도 수립됐다. 정부는 2012년까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3피피엠(ppm) 이하인 '좋은 물' 만들기 달성률을 지금의 76퍼센트에서 최대 86퍼센트까지 높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공사 중 탁수를 줄이고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환경 관리방안이 마련됐다.

마스터플랜 수립에 앞서 정부는 지역 건의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역설명회 개최, 관련 부처 협의, 관련 협회 자문회의와 공청회 개최 등 충실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또한 2008년 12월 경북 안동과 전남 나주를 시작으로 선도 사업을 착공했다. 보상조사와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신속한 보상도 실시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각종 법적 절차를 추진,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시급성을 감안해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환경평가단이 구성됐다. 지역 전문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관계 공무원 등 총 91명이 참여한 환경평가단은 하천기본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세밀히 검토했다.

12개 지자체 의견 수렴… 국민 불편 최소화 집중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관 합동의 사후관리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하천 공사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수질 오염사고를 막기 위한 매뉴얼을 발간해 지자체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9월에는 수질오염 사고를 전문적으로 감시해 모니터링하고 방제를 지원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도 설치했다.

이처럼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관리하에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13억 세제곱미터의 수자원 확보는 물론 9억2천만 세제곱미터의 홍수조절용량 증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좋은 물 달성 수준도 2012년 83~86퍼센트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약 23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G

글 · 김지영기자

공교육이 이긴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8년 기준 19조원에 달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사교육비 절감을 비롯한 교육개혁이 가정경제와 국가경제에 다 같이 이롭다는 인식 아래 입학사정관제 도입, 방과후 수업 활성화, 고교 다양화 방안 등을 추진했다.

문정선(16·서울 성동구 마장동) 양은 오는 3월 하나고등학교에 입학한다. 하나고등학교는 올해 문을 여는 자율형 사립고다. 문 양은 평균 7.4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하나고에 합격했다. 중학교 시절 내내 사교육 한 번 받은 적 없이 방과후 수업만으로 이룬 성과다. 문 양이 다닌 동마중학교의 방과후 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외에도 수능영어, 고등수학 등으로 구성돼 고교 과정까지 미리 공부할 수 있었다.

문 양처럼 지난해에 방과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체 초중고생의 57.6퍼센트인 4백27만6천여 명이다. 방과후 수업 활성화는 지난해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강력하게 추진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하나다.

2008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19조원에 육박했다. 사교육 열풍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지만, 경제 살리기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사교육비로 과다하게 지출돼 국가경제도 휘청이게 만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 수업 활성화 외에도 입학사정관제 도입, 농산어촌 방과후 영어 강사 투입, 학원 교습시간 단축과 학원비 공개, 품질 높은 EBS 수능강의 보급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확대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대학과 특목고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넓힌 제도다. 대학에는 입학사정관제를 지속적으로 늘려 성적 외에 창의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그 결과 2010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1백7개 대학 3만8천7백여 명이 입학사정관제로 대학 전형을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90개 대학 2만4천2백여 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에는 외고 등 특목고 입학 전형방식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유발해온 외고 등 특목고의 학생 선발 방식을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개선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전형 요소를 배제하고,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결과와 학습 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도록 했다.

외고·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등 공교육 강화에 힘써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또한 교육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의 고교를 확대 또는 신설했다. 이에 따라 주로 낙후지역의 학교를 기숙형으로 바꾼 기숙형 고교는 2008년 82개교에서 2009년 1백50개교, 직업교육에 주력하는 마이스터교는 9개교에서 21개교로 각각 늘었다. 교육과정과 학사 일정의 자율성을 확대한 자율형 사립고는 25개교가 새로 지정됐다. 이와 병행하여 교원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추진해 교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전문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는 하고 싶은 공부를 깊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안에 따르면 핵심역량과목 중심의 이수과목과 교과과목을 축소 재편한 것이다. 학교에는 연간 교과 수업시간의 20퍼센트 내에서 증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정경택 기자

올 3월 개교하는 마이스터고는 입학생 전원에게 소질과 적성을 살릴 기회와 다양한 취업 혜택을 준다. 사진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비상경제 대책회의 1년
국격을 높이자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

2009년엔 세계 곳곳에서 ‘코리아’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UAE 원전 수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전방위 외교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드높인 것이다. 이런 놀라운 성과들에 힘입어 올해도 외교 분야는 ‘글로벌 코리아’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전망이다.



동아DB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사진은 한국국제협력단이 교과서를 지원하는 라오스의 한 중고등학교 학생들.

2008년부터 불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는 대한민국을 절벽 끝으로 몰아세웠다. 이런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해법의 한 축은 ‘글로벌 공조’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국정 기조 아래 정부는 대한민국의 ‘프리미엄’을 무기로 삼아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실용외교’의 기치를 내건 결과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이뤄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 G20 의장단의 일원으로 의제 선정과 정상회의 합의문 작성 등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이 뒷받침된 결과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그간 G20 정상회의에서 발휘한 리더십은 세계 선진국들로 구성된 G20 정상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아프리카 등 제3세계까지 외연 확대… 성과 높아

이러한 글로벌 외교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말 경제회복에 큰 힘을 실어줄 성과를 맛봤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프로젝트를 당당히 따내면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된 것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전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데는 이 대통령을 필두로 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비즈니스 외교의 공이 컸다. 이번 원전 수주로 한국형 원전 건설은 물론 준공 후 운영지원 등을 포함하는 초대형 원전 플랜트 일괄 수출로 4백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할 전망이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최근 2010년 업무보고에서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외근무 외교관의 세일즈맨화를 통해 원전과 T-50(고등훈련기) 수출을 도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자원개발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 외교의 특징은 무엇보다 기존의 4강 중심 외교를 벗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로까지 외연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는 활발한 아시아 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했고, 6월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무역·투자, 문화·관광, 녹색성장 등 3대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10월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베트남과 석탄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범아시아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외교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 외교를 통해 아시아 대표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 것과 더불어 지난해 11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0.1퍼센트 수준인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15년까지 0.25퍼센트(약 30억 달러 상당)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국이 된 국제사회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적인 외교 전략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2년 간 협상해온 한·유럽연합(EU)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EU는 국내총생산(GDP)이 18조 4천억 달러인 세계 최대 시장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브릭스(BRICs) 국가 중 최초로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다. 인도는 매년 8퍼센트 이상의 경제성장을 거듭해온 잠재적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에 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페루와 콜롬비아와도 FTA 협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중일 FTA를 준비하기 위해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 연구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온(溫)맵시란? 여름철 노타이 차림의 쿨맵시 캠페인에 이은 겨울철 따뜻하게 옷입기(내복입기, 겹쳐입기) 캠페인입니다.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20℃!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겨울철,
내복 착용만으로 체감온도가 3℃ 상승합니다.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만 낮추면 난방에너지의 20%가 절약되며,
대한민국 전체로는 1조8천억원이 절약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정부 www.mosf.go.kr/hope

우회전 때 꼭 신호등 확인하세요

국제 표준에 맞춘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 3단계 실시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그동안 교통사고 다발, 과다한 혼잡비용 발생, 온실가스 과다 배출, 빈번한 법규 위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 글로벌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체계 선진화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경택 기자

지·정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기존의 교통신호체계가 국제 규격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사진은 신호대기를 위해 서울 서대문로터리에 늘어서 있는 자동차들.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8명(2008년)으로 일본 0.9명, 영국 1.0명, 미국 1.7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6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정체 등으로 야기되는 교통혼잡 비용이 25조8천억원(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3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통 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온실가스 주범의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교통 부문의 78.8퍼센트를 차지한다.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약 5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액도 연간 6천2백억원에 이른다. 도로교통공단이 2008년 서울 등 10개 도시 운전자 3백명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 1인이 1년간 평균 20.3회 정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잦은 교통법규 위반은 전반적인 법질서 경시 풍조를 초래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교통사고율, 과다한 혼잡비용, 온실가스 과다 배출, 빈번한 법규 위반의 주요 원인으로 교통신호 및 도로운영체계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찰청 교통운영계 조재형 경감은 "빈협약 등 국제 표준과 상이한 현행 교통운영체계가 교통질서 훼손의 원인을 제공하고 국제화를 가로막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복잡한 신호 순서 때문에 신호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거쳐 2009년 7월 1일부터 신호 및 도로운영 등 교통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게 개선해왔다.

교통체계 개편은 총 19개 과제로 점멸 신호 및 비보호 좌회전 확대,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 등 경직적인 신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1단계로 2009년 7월부터 점멸 신호 확대 등 4개 과제가 실시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2단계로 우측보행 원칙 확립 등 9개 과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3단계 과제는 직진 우선의 신호원칙 확립, 비보호 좌회전 단계적 확대, 적색 신호 시 우회전 허용 선별 제한, 신호운영 탄력화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지정차로제 개선 및 준수 강화,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 강화 등이다.

1, 2단계 긍정적 성과… 1월부터 직진 우선 신호원칙 등 확립

서울지방경찰청 심재연 경위는 "시행 중인 1, 2단계 과제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안정적인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경찰청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정도의 짧은 시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8대 도시 평균주행속도는 실시 전인 1분기 시속 32.5킬로미터이던 것이 실시 후인 3분기엔 34.1킬로미터로 4.7퍼센트 향상됐고 교차로 교통사고도 12.3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5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직진 우선 신호원칙 확립 △비보호 좌회전 확대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 △지정차로 주행 확립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등으로 이미 시행됐던 교통 운영 선진화 방안 1, 2단계나 올해 시행되고 있는 3단계 과제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3단계 과제 중 하나인 '직진 우선 신호원칙 확립'은 선행 좌회전으로 운영되는 교차로 신호를 '선행 직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사업대상 교차로 수가 많아 빠른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긴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오는 3월까지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 과제로 이미 시행 중인 '비보호 좌회전 확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시행 초기 교통사고 증가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도로 소통 개선의 효과가 커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왔다. 오는 6월까지 교차로 내 좌회전 대기차로(Extended Bay)를 도입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병행 추진해 보다 전폭적으로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역시 2단계에서 추진됐던 '회전교차로 보급'과 '지정차로 주행확립'도 확대된다. 회전교차로 보급을 위해 지난해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지자체나 시민단체에 만들어놓은 상태다. 이에 전국적으로 61개의 회전교차로가 완공되는 등 회전교차로가 대폭 증가되는 추세다. 올해 회전교차로 내 통행우선권 정립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도 개정된다. 지정차로제의 경우 유명무실화된 인지도 및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고 관련 법령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 달 내 지정차로제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3월에는 지정차로제 연구 결과 반영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후진적 교통문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교차로 꼬리물기'도 근절시킬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주요 추진 업무로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선정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교차로 책임제'를 통해 출퇴근 시간 등 지·정체 시간대 교차로에 전담 근무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소, 소통 원활, 공해 및 교통사고 감소 등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기본 교통질서의 확립을 통해 법치주의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교통 환경이 조성되면서 외국인도 국내에서 혼돈 없이 운전하고 내국인도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예정이다. G

글 · 최호열 기자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



단계(시행 시기)	과제
1단계 (2009년 7월 1일~)	① 점멸 신호 운영 ② 신호기 위치 조정 ③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④ 주말·휴일 주차 허용
2단계 (2009년 10월 1일~)	① 비보호 좌회전 확대를 통해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 ② 회전교차로 활성화 ③ 우측보행 확립 ④ 지정차로제 개선 ⑤ 보행신호 점멸 시작시점 조정 ⑥ 교통섬 확대 ⑦ 생활도로 일방통행 운영 ⑧ 좌회전 신호 보완 ⑨ 자전거 신호등 설치
3단계 (2010년 1월 1일~)	① 직진 우선 신호원칙 확립 ② 신호연동 시스템 개발 확대 ③ 무신호 교차로 통행 우선권 확립 ④ 우회전 신호등 운영 ⑤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⑥ 도심 주요 도로 일방통행 확대





교통이 혼잡한 광폭 교차로부터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대한다.

바뀌는 교통운영체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부는 올해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마지막 단계를 시행한다. 2009년 7월과 10월부터 시행 중인 1, 2단계를 토대로 3단계가 실시되면 전국의 교통 흐름은 원활해지고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경찰청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신호 개선과 우측보행 확립을 목표로 하는 19가지 과제가 담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사소한 보행 관습에서 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나 만성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감소하며, 온실가스 과다 배출을 억제하는 등 교통체계 전반의 긍정적 변화가 눈에 띌 것으로 기대돼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실시하는 이 방안은 2009년 7월부터 1단계 4가지 과제가, 10월부터 2단계 9가지 과제가 시행 또는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마지막 3단계 6대 과제를 살펴보았다.

직진 우선의 신호원칙

교통 흐름상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많은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차로 신호등은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가 40.4퍼센트를 차지하고, '좌회전 후 직진' 신호가 29.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직진 후 좌회전' 신호는 9.7퍼센트에 그친다.

이렇듯 '좌회전 또는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를 '직진' 신호보다 먼저 주는 교차로가 많아 교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

진 차량의 교통 체증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 때문에 직진 신호를 다른 신호보다 먼저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직진 후 좌회전' 신호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2011년까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교차로에 '선행 직진'을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3월까지 좌회전 후 직진 신호를 주는 분리 신호 교차로를 우선 전환한다. 동시신호 교차로는 차로 수를 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9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다. 예측 출발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신호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사고도 방지한다.

신호연동 시스템 개발 및 확대

신호연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해 교통 정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한다. 신호연동 시스템이란 한마디로 '교통신호 제어기'와 '중앙 센터'를 연결하는 것이다. 왕복 6차로 이상 되는 넓은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는 네모난 모양의 교통신호 제어기가 설치돼 있다. 이 제어기는 센터에 연결돼 주변 교차로들을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묶어 교통 통제를 한다.

경찰청은 교차로 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신호연동 시스템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계속 엉키는 교통 정체 현상이 없도록 매뉴얼화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대도시 주요 간선도로를 축으로 좀 더 체계화된 신호연동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무신호 교차로 통행 우선권

교통 흐름을 빠르게 돕는 '무신호 교차로 통행 우선권'을 정립한다.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면 시간과 돈 등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무신호 교차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통행 우선권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한편, 접근하는 도로별로 양보나 정지 표지를 설치하고, 회전식 교차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적지 않은 분량으로 무신호 교차로의 통행 우선권을 규정해놓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선진입 통행우선 원칙, 동시진입 때 우측도로 우선 원칙, 폭이 다른 경우 주도로 우선 원칙 등이 명시돼 있는데 여론 수렴을 거쳐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도로와 부도로를 구별하는 안전표시 및 정지선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 운영

앞으로 유럽 국가들처럼 우회전 차량 전용 3색 신호등이 설치된다. 우회전 신호등은 많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그동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회전 방향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우회전 신호등에 적색 신호를 줘 차량의 우회전을 선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교차 방향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집중 설치할 계획이다.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우회전 신호등 운영에 따라 우회전 교통 정체 예방을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광폭 교차로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조사 및 설치 재원을 확보하는 기간을 토대로 올해 1월 초부터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경찰청

직진 신호가 좌회전 신호보다 우선되는 '선행 직진'을 시행하고(사진 위), 외국처럼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심 주요 도로 일방통행 확대

도심 주요 도로에 일방통행을 확대한다. 서울 목동이나 일산 등 거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방통행 도로가 확충돼 있는데 이러한 일방통행 확대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 주요 도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방통행로와 접하는 도로의 교통 소통 대책이나 지역 주민, 지역 상인들의 갈등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등 여론 수렴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1월 초 도시 간선도로 관련 일방통행 시행 기준을 마련한 후 6월부터 사전 대책을 준비해 지방도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 6월부터 대도시 도심 간선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시행 5개월

"짧은 불편, 큰 안전 운전 스트레스 줄었죠"



'1인 1차' 시대로 불릴 만큼 자가 운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도로에 비해 늘어난 차량은 교통 체증을 증가시키고 운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을 돕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돕는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늘려 보행자들이 야간 점멸 신호 중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한다.

경력 10년차 택시 운전기사 김택일(가명 · 41) 씨는 요즘 부쩍 운전 스트레스가 줄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다 보니 길이 막히면 크게 답답함을 느끼곤 했는데 2009년 7월부터 바뀐 교통운영체계가 시행되면서 운전이 전보다 편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09년 4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함을 돕는 19개 과제를 담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점멸 신호 운영 확대,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등 4가지를, 10월 1일부터 비보호 좌회전 확대, 좌회전 신호 보완대책 강구 등 9가지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직진 우선의 신호 원칙, 신호연동 시스템 개발 확대 등 6가지 과제를 시행한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시행 후 김 씨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좌회전 신호체계가 변경된 것이었다. 기존 신호체계는 대부분 좌회전 후에 직진 신호가 주어졌다. 또한 직진 신호와 함께 왼쪽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주어진다. 따라서 좌회전한 차량이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좌회전하던 차량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걸려 멈춰서 직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기 일쑤였다.

김 씨는 좌회전이 우선시되는 신호체계 때문에 직진 차량들이 정체되는 현상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편도 3차로 이하의 작은 도로를 대상으로 좌회전 신호가 사라지고 '비보호 좌회전'이 확산되면서 정체 현상이 덜해졌음을 느끼고 있다.

'직진 우선' 병목현상 줄고 상습적 정체도 줄어

그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할 때도 마냥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것보다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요령껏 방향을 틀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큰 교차로에서도 좌회전 후 직진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뀐다는 소식에 김 씨는 좌회전하는 차들로 인한 상습적인 정체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교차로 중 9퍼센트만이 직진 후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직진 차량의 소통이 여의치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가는 길에 먼저 직진 신호를 주고 있다. 또 좌회전 차량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좌회전 차로를 2개나 늘리자 직진 신호가 먼저 떨어져도 예전보다 교통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경찰청 교통운영관리관실 조재형 경감은 "지금까지 소규모 도로에서만 가능했던 비보호 좌회전을 3차로 이하 교차로에서도 적용하고 있다"며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신호주기가 교통 흐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비보호 좌회전 허용으로 좌회전 차량과 반



편도 3차로 이하를 대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돼 교통 정체 현상이 줄어들고 있다.

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좌회전 차량이 없을 때 직진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좌회전 감응신호 시스템, 이른바 좌회전 차량 검지기도 설치됐다. 좌회전 차량이 서 있는 자리에 1.8미터 크기의 사각 센서를 설치해 차량이 없을 때는 직진 신호를 길게 줌으로써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만든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부 심재연 경위는 "현재 서울지역 97곳에 설치된 좌회전 차량 검지기를 통해 교통 신호를 좀 더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교통 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간 운전이 많은 김 씨는 7월 1일부터 '점멸 신호' 운영이 부쩍 늘어 야간 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새벽처럼 차량이 드문 시간에 빨간 신호에 걸리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불필요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그는 빨간불에도 지나가려다 뒤늦게 달려오는 차량과 부딪칠 뻔한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점멸 신호를 보고 서행하면서 운전하니 오히려 사고 위험도 줄고, 신호를 기다리지 않아 좋다"고 말했다.

야간 점멸 신호 · 보행자 신호기 설치로 안전까지 확보

점멸 신호 운영은 2009년 7월 7천9백61개소에서 12월 2만2개소로 확대됐는데 2단계 과제 중 하나인 비보호 좌회전 운영 확대와 더불어 진행됐다. 2가지 과제가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시행된 것임에도 주행속도가 4.7퍼센트 향상되고, 교차로 교통사고가 12.3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통과 안전에 모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점멸 신호는 심야 시간 최소 4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점멸 신호는 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운전하는 것처럼 보행자 역시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건넌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왕복 6차로 이상 되는 넓은 도로에서는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에 대해 야간 업무가 많아 주로 새벽에 퇴근한다는 회사원 정유영(가명 · 25) 씨도 "처음엔 그렇게 느꼈다가 요새는 안심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점멸 신호 동안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돕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서울 시내 56곳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정 씨는 "신호등 기둥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좀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며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위험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경찰청은 보행자 신호기를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로, 도심 외곽도로 등에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됐던 지역의 신호기 위치도 조정했다.

주말마다 가벼운 산행을 즐기는 주부 오행숙(34) 씨는 '공휴일 도심 주차 허용 지역'이 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반겼다. 공휴일이면 서울 시내 근처 산에서 등산을 즐겼는데 차를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했다. 그러다 최근 공휴일 도심 주차 허용 지역이 산, 공원, 종교 시설 등으로 확대돼 오 씨는 산 근처 도로에 주차를 하고 불편함 없이 등산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교통량이 적을 때 도로 주차를 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심적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휴일 도심 나들이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국 4백70개소 2백4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 공휴일 도심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교통량이 줄어드는 공휴일에 도심 내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올해부터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전 도로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동아DB

드림스타트 홍보대사 나경은 아나운서

“가난의 대물림 ‘드림스타트’로 끊습니다”

가난이 무서운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웃음을 잃어간다. 이런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다.







나경은 아나운서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가족부 주도 아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그에 맞는 교육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안녕하세요? MBC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 아이조아>에서 ‘뽀미 언니’로 활약하고 있는 MBC 아나운서 나경은입니다. 저는 지난해 11월에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소득 양극화를 이르는 말입니다. 소득 양극화는 자연스레 정보 격차와 학습 격차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가난은 세습됩니다.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 현상도 가중되고요. 특히 아동의 빈곤은 아동의 전 생애는 물론 사회 전체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같은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0~만 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아동복지 정책은 문제 발생 이후 단편적으로 개입하는 사후 관리적 서비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해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능동적인 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진화

실제로 아동에게 일찍 투자하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해 사회문제 예방, 사회통합 유도 등 사회적 환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아동에 대한 앞선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0~5세 빈곤가정 아동에게 교육, 건강 등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사업과 0~14세 빈곤 아동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슈어스타트’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주도 아래 아동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16개 지역, 2008년 32개 지역에 이어 2009년 75개 지역에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층 빈곤 아동을 집중 지원하고 아동과 가족을 함께 보살피는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성 함양 교육을 지원하며 가족의 지지까지 이끌어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아동과 그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비롯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까지도 조기 발견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부적인 도움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해, 아동과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를 위해 시군구 소속 전담 공무원 3명과 민간 전문 인력 3명 등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공공, 민간 아동복지 인프라를 연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의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크게 건강(보건) 서비스, 보육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건강(보건) 서비스' 프로그램은 보건소와 국공립 병원, 정신보건센터, 민간 전문 병·의원 등과 연계해 임산부에게는 출산 전까지 검사와 접종, 영양 보충 등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영·유아와 아동에게는 예방접종, 구강관리, 건강검진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발달을 증진시키는 등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연계한 '보육 서비스' 프로그램은 예방, 맞춤, 통합형 아동발달 서비스를 지향해 취약계층 아동의 언어 및 인지발달 증진, 아동 양육과 관련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등 가정 기능 회복과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증재 프로그램, 가정방문 및 보육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가족까지 돌보는 통합 서비스 제공

이 밖에 '복지 서비스'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복지관, 자활기관 등과 연계해 가족복지를 강화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합니다. 이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학교 내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가족 지원, 지역 보건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와 같은 가족 지원 및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 사회성 향상, 문제 행동 감소, 주요 교과목 성적 향상 등 벌써부터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은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점 등을 조기 발견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나경은 아나운서는 취약계층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위문열차 무대는 병사들의 참여로 더욱 열기가 뜨겁다. 해군 2함대 병사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에 객석에서 열렬히 호응하고 있다.

칙칙폭폭 '위문열차'에 장병 氣 '팍팍'

48년간 2500회 공연… 국군방송 '위문열차' 현장

겨울 추위 속에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마음을 녹여줄 뜨거운 공연 무대가 있다. 국군방송의 위문열차 공연이다. 신성한 군 복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신나는 무대를 펼쳐 보이는 위문열차의 해군 2함대 공연 현장을 찾았다.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장병 여러분!"

국군방송 '위문열차' MC인 유리와 홍순목의 인사에 "와" 하는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시의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는 국군방송 위문열차 특집 공연 무대가 마련됐다. 추운 겨울, 위문편지 못지않게 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바로 위문열차 공연이다. 대중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는 위문열차는 1961년 10월 27일 처음 시작해 5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국군방송의 장수 공연 프로그램이다.

유리의 첫인사를 시작으로 해군 2함대 영상이 오프닝을 장식한 이번 공연은 2009년 들어 평택 해군 2함대에서 두 번째 열린 위문열차 공연으로, 해군 2함대 병사들과 군 가족 등 1천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이어졌다. 해군 2함대는 1999년, 2002년 제1·2연평 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가한 부대다.

이번 연말 특집 공연은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공연의 오프닝은 박병철 병장을 비롯한 6명의 해군 2함대 댄스팀과 무용단, 코러스팀 등이 공연을 했고, 이어서 가수 아이유와 현숙이 등장했다.

'소녀 디바'로 통하는 아이유는 '마쉬멜로우'와 '있잖아'를 불러 군인들의 환호성을 받았다. 현숙도 '물방울 넥타이'와 '가요 메들리'를 불러 흥을 돋웠다. 성악가 이지영, 장유상 씨는 '희망의 나라로'와 '오 솔레 미오'를 불러 진중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서해 사수하는 해군 2함대 사령부서 특집 공연

가수들의 공연 중간에 고한석 해군 제2함대 부사령관이 장병들을 응원했다. 공연 후반부에는 연예병사 그룹 제이워크(J-Walk)의 김재덕이 등장해 젝스키스의 히트곡 '커플'을 불렀다.

특히 이날 병사들의 환성을 자아낸 하이라이트는 걸그룹이었다. 최근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들이 잇따라 출연해 객석의 끝없는 환호를 받았다. 걸그룹 F(x)는 히트곡 'Chu'와 '초콜릿 러브' '라차타' 등 세 곡을 불러 쉴 새 없는 박수갈채를 얻었다. 레인보우는 '가십 걸'과 '낫 유어 걸' 등 두 곡을 불렀다.

인기 가수 아이비 역시 '터치 미' '유혹의 소나타' 등으로 공

해군 2함대 공연에서도 부대원들이 만든 무대 응원용 도구들이 눈에 띄었다. 쓰고 남은 박스를 이용해 좋아하는 가수에게 이른바 '팬심'을 드러낼 만한 도구를 만들었다. 특히 공연 중 적극적인 관람을 한 장병들은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어 응원에 더욱 열심이었다.





'소녀 디바'로 불리는 아이유의 공연 모습(왼쪽). 플래카드를 든 병사들의 모습이 재미있다.

연장이 들썩일 듯한 열기 넘치는 반응을 얻었다.

공연 말미는 군 복무 중인 양동근과 다이나믹 듀오가 만드는 열정적인 힙합무대로 마무리했다. 이들은 '고백' '해적' '진짜' 등 7곡 이상의 노래를 부르며 끝까지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2008년 10월 입대한 다이나믹 듀오는 최근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원으로 선발돼 연예병사로 활동 중이다.

해군 2함대 정훈공보실 이재호 공보과장은 "해군 2함대는 육군으로 말하면 전방에 있는 것과 같아서 여느 부대보다 긴장감이 높다"며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이 잘 마무리됐고 한 해를 격려하는 의미로 열린 위문 공연으로 긴장감이 많이 완화됐다. 위로도 받은 한편 사기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위문열차는 1961년 첫 방송 때부터 대중스타들이 등장했다. KBS 공개홀에서 열린 첫 방송에는 당시 인기 절정의 연예인 패티김, 김치켓, 박재란 등이 참여해 화제가 됐다. 이후 위문열차는 지상파 쇼 프로그램 못지않게 인기 스타들이 많이 출연해 군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지금까지 송해, 최희준, 현미, 현철, 설운도, 인순이, 혜은이, 조용필, 이수영, 원더걸스, 소녀시대, 시야, 배슬기, 카라, 이효리 등 최고 인기 가수들이 위문열차의 공연 무대에 올랐다.

이날 해군 2함대 공연에서도 부대원들이 만든 무대 응원용 도구들이 눈에 띄었다. 하드보드지나 켄트지에 이름을 적는 것은 기본이요, 쓰고 남은 박스를 이용해 좋아하는 가수에게 이른바 '팬심'을 드러낼 만한 도구를 만들었다. 특히 공연 중 적극적인 관람을 한 장병들은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응원에 더욱 열심이다.

무대 뒤쪽 대기실 풍경 또한 섭외된 인기 연예인들과 연예병사들, 녹화 방송 스태프들로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번잡한 속에서도 출연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위문열차는 연간 52회가량 공연한다. 196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략 2천5백회 이상 공연을 펼쳤다. 가수나 그룹 등 한 회당 7~9개 공연팀이 참가하므로 누적하면 약 2만 개 팀이 위문열차를 거쳐간 셈이 된다.

국군 장병 위로 · 民軍 화합 위한 흥겨운 한마당

위문열차의 본래 목적은 '국군장병 위로'지만 때로는 민군(民軍) 화합을 목적으로 삼기도 한다. 매년 진해 군항제, 국군의 날, 지상군 페스티벌 등 민과 군이 함께하는 행사에서도 위문열차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외부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이러한 공연은 군대에 간 젊은 연예병사들과 모처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들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

국군방송 위문열차 담당 천명길 PD는 "최근에는 신세대 장병들의 공연 감상 수준이 높아져 전에는 무조건 예쁜 가수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여자가수라도 가창력 있는 가수들을 더 좋아한다"며 "오히려 때로는 실력 있는 남자가수들이 더 호응이 좋은데, 얼마 전 연예사병으로 영입된 다이나믹 듀오가 특히 그렇다. 콘서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장병들과 일체가 되는 시간을 만들어 어지간한 걸그룹보다 인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예전에 라디오로만 방송되던 위문열차는 2005년 12월 국군방송 TV 개국 이후 한 달에 한 번 TV로도 전파를 탄다. 이젠 국군방송의 간판 쇼 프로그램으로, 군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는 중이다. G

글 · 변인숙 객원기자

결혼이민 여성들의 따뜻한 나눔 '다문화 적십자 주부 봉사회'

"한국 생활, 나누면서 더 가까워져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맞지 않는 낯선 곳에서 보금자리를 꾸리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먼 나라에서 온 결혼이민자 주부들은
그 어려움을 '봉사'로 승화시켜 한국을 느끼고 이해하며 새 터전에 적응해나가고 있다.



일본, 태국 등에서 온 결혼이민 여성들의 모임 '다문화 적십자 주부 봉사회'는 매달 한 번씩 서울 양천 · 강서 적십자 봉사관에 모여 홀몸노인을 위해 밑반찬을 만들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담그기 등 음식 봉사를 해왔다.

"참기름을 조금 더 넣을까? 간이 좀 싱거운 거 같지 않아요?" 한파가 몰아친 지난해 12월 중순에 찾은 서울 양천 · 강서 적십자 봉사관 복도는 고소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외국인 이민자 주부 봉사단이 모여 인근 홀몸노인들에게 제공할 밑반찬을 만드는 날이었다.

봉사관 부엌에는 하얀 조리사용 모자를 쓰고 노란색 적십자 봉사단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주부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콩나물을 커다란 함지박 가득 담아 무치고 있었다. 이들은 전국에 있는 주부 봉사회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이민을 온 외국인 주부들로 구성된 '다문화 적십자봉사회'다.

"작년에 7명이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은 회원이 30명 정도 돼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서로 의지하고 돕는 친구가 되었어요."

다문화 봉사회를 만든 주인공으로 회장을 맡고 있는 일본인 주부 야스다 요코(46) 씨의 말이다. 야스다 씨는 1998년에 용접 기술자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왔다. 열한 살부터 네 살까지

딸, 아들 두 명씩 네 자녀를 키우는 베테랑 엄마다. 이날 네 살짜리 막내아들을 봉사활동에 같이 데리고 온 야스다 씨는 봉사회 덕분에 친구들이 생긴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문화교실이 생겼다고 해서 나오게 됐어요. 외국인 주부들이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요리를 배우는 동안 여기 적십자 주부 봉사회 회원들이 우리가 데리고 온 어린애들을 봐주셨어요. 고마운 마음에 우리도 이분들처럼 봉사하고 싶다고 관장님께 말씀드렸죠."

이렇게 만들어진 봉사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홀몸노인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담그기 등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날 다문화 봉사회원들이 만든 음식은 연두부, 코다리 조림, 콩나물 무침 등 세 가지 반찬과 밥 40인분. 아침 9시 반에 시작해 낮 12시 전까지 부지런히 포장을 마치면 배달 봉사원들이 인근 홀몸노인의 집으로 반찬을 나른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이들에게도 봉사활동은 '작은 도움을 통해 느끼는 큰 뿌듯함'을 주었고 거기다 덤으로 외국 생활에서 느끼던 이방인이라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덜어줬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애들 키우느라 집에만 있어서 한국어가 많이 안 늘었는데 여기 봉사관에 다니면서 한국말을 정말 잘하게 됐어요. 전에는 제가 한국어를 하면 남편만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훨씬 좋아졌어요."

태국에서 온 사마이(37) 씨는 버스 운전을 하는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온 지 올해로 10년째다. 코끼리 축제로 유명한 수린이 고향이고 여섯 살과 여덟 살짜리 아들 둘을 두고 있다.

"문화교실 나왔다가 봉사활동… 외로움 · 소외감 덜었어요"

"빵을 만들어서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갖다드릴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시간 되면 자기들도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봉사하는 엄마가 존경스럽다며 아이들도 꼭 한번 같이하고 싶대요."

여기 적십자관에서 같은 태국 출신 친구 세 명을 포함해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등에서 온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게 돼 즐겁다는 사마이 씨는 한국음식 중 잡채 만들기가 자신 있다고 한다. 사마이 씨는 "봉사활동 덕분에 한국음식도 만들 수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 일석삼조"라고 웃으며 말했다.

"지난 번 시어머니 생일에 시골집에 가서 한국음식 만들어 드렸더니 아주 맛있다고 기뻐하셨어요. 여기 오는 다른 회원들도 아이 반찬, 식구들 식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좋아합니다."

양천 · 강서 적십자 봉사관에서는 월 1회 봉사활동 외에도 다문화 가정주부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한글 배우기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교실을 열고 있다. 봉사활동 전날 저녁에는 1년 과정을 마무리하는 종강 파티가 열렸는데 이날 참석한 주부들이 만든 감사 카드가 벽에 붙어 있었다. '적십자 봉사관, 그동안 공부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사람도 많이 알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칠리' 등 문법은 좀 어색해도 반듯하고 보기 좋은 글씨체들이 눈에 띄었다.

> **"외국인 주부들은 대체로 한국말도 서툴고 남편과 나이 차도 많이 나는 편이라 결혼 후에도 한국 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봉사관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에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



다문화 봉사회원들은 3시간 동안 연두부, 코다리 조림 등 반찬과 밥 40인분을 맛있게 만들었다. 이 음식들은 적십자 봉사관 주변에 사는 홀몸노인들에게 배달됐다.

양천 · 강서 적십자 봉사관 임효숙 관장은 "외국인 주부들은 한국말도 서툴고 대체로 남편과 나이 차도 많이 나는 편이라 결혼 후에도 한국 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봉사관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에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에는 외국인 주부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열기도 했다. 현재 양천구에만 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결혼 이민 주부가 약 1천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문화 봉사회를 지원하고 있는 정정례 팀장은 "문화교실만 다닐 때는 손님처럼 느끼던 외국인 주부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같은 적십자 봉사단원이라는 정체성과 자신감,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다른 봉사회들과 연결해 장애인 체육회 안내활동 등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려 하는 봉사활동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2010 월드컵 16강을 향해 슛!

월드컵 대표팀 남아공 전지훈련… '고지대+실전' 맹연습

대망의 경인년 2010년이 밝았다. 느낌도 좋다. 남아공월드컵이 열리는 호랑이의 해. 그것도 60년 주기로 찾아온다는 '백호(白虎)'의 해를 맞아 첫 원정 월드컵 16강 꿈이 영글어가고 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선수들이 1월 6일 오전, 여름 날씨인 남아공 루스텐버그의 올림피아파크스타디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 축구의 상징이 호랑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로 전지훈련을 떠난 '국가대표 호랑이' 허정무호. 이어질 전훈지 스페인은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거스 히딩크 감독과 대표팀이 담금질을 한, 기분 좋은 추억이 깃든 곳이다.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의 꿈을 향한 그들의 위대한 도전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까.

허정무 감독은 1월 4일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번 훈련에서 국내파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쌓고, 경기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남아공에서 스페인으로 이어질 20여 일간의 훈련이 최종 엔트리 23명을 뽑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훈의 주안점은 현지 적응과 동계 훈련을 겸한 실전 테스트 등이다. 대표팀은 남아공에선 월드컵경기장을 미리 밟아보며 사전 적응을 하게 된다. 월드컵 기간 중 베이스캠프를 차릴 해발 1천2백50미터의 루스텐버그에서 훈련을 하며 가장 우려되는 고지대 적응 요령을 미리 익힐 수 있다는 점도 대단히 큰 소득이다. 또한 잠비아와 벌일 A매치는 물론, 현지 클럽 두 팀과 치를 연습 경기는 '고지대+실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이어질 스페인 말라가 훈련에서는 핀란드, 라트비아와 2차례 A매치를 치른다. 이들은 비록 월드컵 본선에서 탈락했지만 한국과 월드컵 조별예선에서 만날 그리스를 겨냥한 상대로 볼 수 있다.

전례 없이 풍성한 지원 "호시우보 자세로 임할 것"

허 감독은 이번 전훈을 앞두고 파주NFC에 대표팀을 소집했을 때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월드컵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호시우보'란 호랑이와 같은 예리한 판단력과 소처럼 신중한 행보를 의미하는 사자성어. 대표팀의 남아공 전훈은 항공료와 체재비를 포함해 대략 8억원가량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경기장 대관료와 훈련장 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



동아DB

'한국 호랑이호'를 이끄는 허정무 대표팀 감독.
2010 남아공월드컵 16강 꿈을 담금질하기에 여념이 없다.

동아DB

> "이번 전지훈련에서 국내파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쌓고 경기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남아공에서 스페인으로 이어질 20여 일간의 훈련이 최종 엔트리 24명을 뽑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한 금액이지만 전례 없이 풍성한 지원만큼이나 최적의 훈련 성과가 기대됨은 물론이다.

"그라운드 안에서는 신예든, 고참이든 1백 퍼센트 백지상태에서 시작한다."

허정무 감독이 항상 강조해온 얘기다. 이는 치열한 주전 경쟁을 시사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번에 전훈을 떠난 25명의 대표팀은 일본 J리거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 전원이 국내파다. 허 감독은 "유럽파와 비유럽파의 수준 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본선에서 잘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몇 차례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활약을 펼쳐온 이동국(전북)의 행보가 핵심 포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98 프랑스월드컵 이후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없었던 그였다.

2002 한일월드컵에선 히딩크 감독에게 '게으른 선수'로 낙인찍혀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했고, 2006 독일월드컵 때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월드컵은 그에게는 세 번째 도전이 된다. 이동국으로선 유일하게 갖지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허 감독의 눈길을 반드시 사로잡아야 한다.

기존 멤버들만큼이나 고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도 있다. 어쩌면 마지막 승선의 기회일 수도 있을 터. 지난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뒤 허 감독은 "내년(2010년) 1, 2월에 있을 소집 훈련이 국내파의 마지막 점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한 의지를 반영하듯, 이번 훈련에는 A매치에 단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는 선수들이 무려 9명이나 참가했다. 그중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선수도 한 명(김보경·홍익대)이 포함됐다. 신장 1백96센티미터 '꺽다리' 공격수 김신욱(울산)과 또 다른 막내인 구자철(제주)의 활약도 관심사. 프로 무대에서는 녹록지 않은 활약을 펼쳐왔으나 A매치 출장 횟수가 각각 1, 2회밖에 되지 않는 노병준과 김형일(이상 포항) 같은 '중견 신예'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대표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 참가한 선수 중 본선에 갈 수 있는 이는 절반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50퍼센트 확률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어쩌면 생존 확률은 더 낮을 수도 있다.

치열한 경쟁 구도는 해외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파'란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대표팀 붙박이'란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1백80도 바뀌었다.

최종 엔트리 두고 국내파·해외파 예외 없는 경쟁

허정무 감독은 늘 "실전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면 대표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대표팀의 기둥으로 생각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들도 예외가 아니다. 주축 공격수였던 설기현(풀럼)이 소속 팀에서 주전에서 밀려나자 과감히 발탁 명단에서 제외했던 허 감독이다. "누구든 탈락할 수 있고, 누구든 발탁될 수 있다. 대표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기준은 항상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허 감독은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프로축구팀(EPL) 위건 애슬레틱에서 K리그로 돌아온 조원희(위건)에게도 쓴소리를 던졌다. "무엇보다 조원희는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한다. 국내 복귀가 큰 도움은 되겠지만 아직 당장 대표팀에 뽑을 생각은 없다." 다소 팬들의 관심에서는 밀렸지만 안정환(중국 다롄 스더), 이천수(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사르) 등 추억 속의 이름들이 꾸준히 거론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사실 해외에서 국내 무대로 복귀하더라도 다시 대표팀에 뽑히려면 뭔가 확실한 임팩트를 남겨야 한다. 이동국에게는 어렵사리 기회가 찾아왔지만, 2006년 당시 한국을 이끈 딕 아드보카트 감독의 부름을 받고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제니트에서 활약하고 돌아온 이호(성남)에게 여전히 기회가 오지 않는 사실이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물론 대표팀 내 확실한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박지성(잉글랜드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박주영(AS모나코), 이청용(잉글랜드 볼턴 원더러스FC), 기성용(스코틀랜드 셀틱FC) 등은 부상과 같은 치명적 사유가 없는 한 승선이 유력시되지만 말이다. G

글 · 남장현(스포츠동아 기자)



춥지도 않고 눈조차 없는 겨울은 삭막하고 을씨년스럽다. 사방천지 온 세상이 은세계를 이루고, 매서운 삭풍이 면도날처럼 섬뜩하게 느껴져야 비로소 겨울답다. 대관령을 찾는 사람들이 겨울철에 유독 많은 까닭도 우리나라의 어느 곳보다 날이 춥고 폭설도 잦아서 겨울 특유의 풍경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풍한설 몰아치는 대관령에서는 잠깐 서 있기만 해도 머릿속까지 맑아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함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은 대관령~선자령 구간의 백두대간 능선길을 주파한다.

대관령 ~ 선자령 눈꽃길은 대표적인 겨울 트레킹 코스 중 하나로 손꼽힌다.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8백32미터, 선자령은 1천1백57미터다. 직선거리로 4.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두 곳의 표고 차이는 3백25미터에 불과하다. 두루뭉술한 산봉우리 몇 개가 징검다리처럼 놓였고, 산과 산 사이는 들녘처럼 평평한 백두대간 능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대관령에서 선자령으로 가는 길은 등산이 아닌 트레킹이다. 혹한, 폭설, 강풍 등에 대비한 장비와 복장만 제대로 갖추면 겨울철에도 큰 어려움 없이 다녀올 수 있다. 실제로 선자령 눈꽃길을 걷다 보면 초등학생 아이가 포함된 가족 트레커들도 간간이 마주치게 된다.

대관령에서 선자령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다. 원래는 백두대간 능선을 따라가는 길 하나뿐이었으나, 근래 산림청에서 계곡길을 새로 개설했다. 백두대간 능선길은 조망이 상쾌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대신에 전체적인 풍광이 약간 단조롭다는 느낌을 준다. 반면에 새로 난 계곡길에서는 잣나무, 낙엽송, 물푸레나무, 참나무, 전나무, 속새, 조릿대 등이 번갈아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해준다. 하지만 능선길에 비해서는 웅장하거나 상쾌한 맛은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므로 최상의 조합은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을 달리해서 두 길을 모두 섭렵하는 것이다. 대관령에서 선자령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순환등산로의 길이는 모두 10.8킬로미터로 너댓 시간이 소요된다.

선자령 순환등산로는 강릉 출신의 소설가 이순원 씨와 산악인 이기호 씨가 개척한 '강원도 바우길' (cafe.daum.net/baugil)의 첫 번째 구간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대관령을 넘고 경포대를 거쳐 정동진 바닷가까지 이어지는 강원도 바우길 1백50킬로미터를 개척했는데, 대관령에서 선자령 정상까지의 순환등산로를 '선자령 풍차길'이라 명명했다. 바우길의 '바우'는 흔히 강원도 사람을 일컫는 '감자바우'를 상징하는 말이자 고대 바빌로니아 신화에 등장하는 건강의 여신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이순원 씨는 누구나 그 길을 한번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저절로 건강해질 것이라는 주술적 의미와 신화적 의미를 담아서 '바우길'로 이름지었다고 한다.

조망 상쾌하고 웅장한 백두대간 능선길을 올라

경인년 새해의 첫 주말 아침에 횡계행 직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새벽부터 흩날리기 시작한 눈발이 제법 굵어지더니 마침내 고속도로가 눈길로 변했다. 결국 예정 시간보다 1시간 20분이나 늦게 횡계 버스정류장에 도착했다. 다시 택시를 타고 옛 대관령휴게소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 40분. 선자령 정상까지 갔다 오기에는 매우 빠듯한 시간이었다. "그래도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자"며 새로 개설된 계곡길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선자령 계곡길은 옛 대관령휴게소 건물에서 대관령 국사성황사 방면으로 3백미터쯤 올라간 지점에서 시작된다. '선자령 순환등산로 5.8킬로미터'를 알리는 이정표와 함께 여러 개의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서 길 찾기는 어렵지 않다. 처음에는 평탄한 풀숲 길을 짧게 걷다가 이내 잣나무와 물푸레나무가 울창한 숲에 들어선다. 초입부터 눈앞에 펼쳐진 설경이 가히 환상적이다. 단가 '사철가'에 묘사된 겨울 산의 풍경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듯하다.

백두대간… 銀세계 가운데에서



바람 거센 선자령 부근, 백두대간 능선에 세워진 풍력발전기.



1 선자령 계곡길은 대관령 양떼목장의 맨 위쪽 울타리와 나란히 이어진다.

2 백두대간 능선길의 나뭇가지에 피어난 상고대.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설백천지백(月白雪白天地白)허니/ 모두가 백발의 벗이로구나/……'

작은 개울을 두엇 건너고 속새가 군락을 이룬 습지를 가로지른 뒤 짧은 나무계단 길을 올라서자 뜻밖의 이국적 풍광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관령 양떼목장의 최상부에 올라선 것이다. 비록 울타리 밖이지만, 대관령 양떼목장의 근사한 설경을 입장료(건초 구입비)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구경했다. 선자령 계곡길은 양떼목장의 울타리와 나란히 이어지다가 다시 잣나무 숲을 가로지른다. 잣나무 가지마다 무겁게 내려앉은 눈이 이따금씩 하얀 눈보라를 일으키며 휘날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고즈넉한 대관령 국사성황사도 둘러보고

대관령휴게소를 출발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1.6킬로미터 거리의 풍해조림지 삼거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만난 중년의 부부와 함께 새봉전망대까지만 오르기로 결정한 뒤 대관령 국사성황사 쪽으로 길머리를 돌렸다. 사실 그동안 지나온 길의 설경을 본 것만으로도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근사했다. 그 부부를 만나지 않았다면 국사성황사만 둘러본 뒤에 곧장 대관령휴게소로 내려갈 작정이었다.

하얀 눈에 뒤덮인 대관령 국사성황사는 산사처럼 고즈넉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무격(巫覡)들의 악기 소리와 사설이 늘 끊이질 않는 곳인데, 이날은 산신당 앞에 서서 묵묵히 기도하는 박수(남자무당) 두 사람만 눈에 띄었다. 국사성황사에서 조붓한 시누대 길을 2백미터만 걸으면 백두대간 능선길에 올라선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는 길은 강릉으로 내려가는 대관령 옛길이고, 남쪽으로 가면 대관령휴게소가 나온다. 선자령으로 가려면 북쪽 길을 택해야 한다. 여기서 무선표지소 앞까지 약 5백미터 구간은 딱딱하고 삭막한 콘크리트 포장도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많은 눈에 뒤덮인 길바닥이 푹신해서 의외로 걷기가 편했다.

무선표지소 앞의 갈림길에서 선자령 정상까지의 거리는 3.2킬로미터. 시곗바늘은 이미 오후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해 지는 시간까지 약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다행히도 바람이 잦고 시계(視界)도 최악은 아닌 데다 능선길의 경사가 완만하고 사람들의 발자국도 뚜렷해서 야간산행을 감행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섰다. 동행한 부부의 의향을 물었더니 "웬만하면 선자령 정상까지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3 '백두대간 전망대'라 불릴 만큼 조망이 탁월한 선자령 정상.

여행 정보

숙박 대관령 아래의 횡계리 일대에는 레포빌펜션(033-336-8338), 대관령옛길펜션(033-336-3622), 구름위의테라스(033-333-7733), 남우장(033-335-5581) 등의 펜션과 호텔, 콘도 등이 즐비하다. 하지만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 스키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스키 시즌의 주말과 휴일에는 숙소를 구하기도 어렵고 숙박료도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겨울철에는 대관령 너머 강릉 지역의 동아호텔(033-648-4411), 경포수모텔(033-644-1239) 등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맛집 황태의 본고장인 횡계리에는 황태회관(033-335-5795), 송천회관(033-335-5943) 등 황태요리 전문점이 많다. 담백하고 따끈한 황태국은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고, 매콤하고 고소한 황태구이는 산행 후 쇠해진 기력을 보충해준다. 횡계리의 또 다른 별미인 오삼(오징어+삼겹살)불고기는 도암식당(033-336-5814)과 납작식당(033-335-5477)이 맛있다. 그리고 원조맷돌순두부(033-336-2386)집은 직접 갈아 만든 순두부 맛이 일품이다.

가는 길 **승용차** | 영동고속도로 횡계나들목→구 영동고속도로(456번 지방도)→옛 대관령휴게소(상행)
대중교통 | 서울의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진부, 횡계 경유 강릉행 버스가 06:30~20:05 사이에 하루 24회 출발. 2시간 30분 소요. 횡계 버스정류장에서 대관령휴게소까지는 노선버스가 없으므로 택시(033-335-6263, 5960)를 이용해야 한다. 요금은 7천~8천원 선.



선자령으로 가는 백두대간 능선길은 산책로나 다름없다. 아주 완만한 오르막길의 연속이어서 평지를 걷듯 빠른 속도로 이수(里數)를 늘릴 수 있었다. 시간이 워낙 빠듯한 데다 갑작스럽게 안개까지 몰려오는 바람에 새봉전망대는 아예 올라보지도 못했다. 날씨 쾌청한 날의 새봉전망대에서는 동해 바다와 강릉 시내가 손에 잡힐 듯이 가깝게 보인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라 1백미터 전방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설상가상으로 바람까지 거세지기 시작했다. 선자령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기상변화이다. 연신 귓전을 때리는 바람소리에 뒤섞여 산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우웅~우웅~" 소리도 들렸다. 소리를 좇아 몇 걸음 더 다가가니 풍력발전기의 거대한 위용이 눈앞을 가로막았다.

능선 곳곳 세워진 풍력발전기는 또다른 볼거리

내내 자욱하던 안개가 삽시간에 걷히자 백두대간 능선의 곳곳에 세워진 풍력발전기들이 죄다 형체를 드러냈다. 대관령과 선자령 일대의 대관령풍력발전단지에는 높이 80미터의 타워(기둥)에 직경 82미터의 거대한 회전날개가 부착된 풍력발전기 53기가 세워져 있다. 백두대간 능선길에서 듣는 기계음이 다소 낯설고 생뚱맞긴 하지만, 이제는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대관령으로 끌어들이는 이색 관광자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선자령 정상은 의외로 평범하다. '백두대간선자령'이라 새겨진 거대한 표지석 이외에 딱히 눈에 띌 만한 것도 없다. 하지만 조망만큼은 비할 데 없이 시원스럽다.

'백두대간 전망대'라는 별칭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방팔방으로 시야가 활달하다. 매봉, 황병산, 새봉, 대관령 등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능선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쪽으로는 검푸른 동해 바다, 서쪽으로는 대관령 삼양목장의 광활한 초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하지만 노루꼬리처럼 짧은 겨울 해가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춘 뒤라, 일망무애(一望無涯)의 그 탁월한 조망을 차분하게 누릴 여유가 없었다.

기념 촬영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하산을 시작했다. 선자령 정상에서 4.8킬로미터 떨어진 한일목장을 거쳐서 횡계리 이촌마을로 내려가는 임도를 하산코스로 잡았다. 임도에는 오래되지 않은 차바퀴의 흔적이 또렷한 데다 비상용 헤드랜턴이 2개나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이촌마을의 큰길까지 무사히 내려설 수 있었다. 인적 끊긴 찻길을 터벅터벅 걸으며 되새겨 보니, 방금 전까지 걸었던 그 눈길이 꿈길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맞아. 아름다운 기억들은 늘 그랬었지."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정경택 기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대왕중학교는 학교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약과 녹색성장 교육을 함께 하고 있다.

서울 대왕중학교… 태양열로 불 켜는 '그린스쿨' 모범학교

"녹색미래 글로벌 일꾼 만듭니다"

미래의 그린 리더(Green Leader)는 어떻게 자라나는가.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대왕중학교가 녹색학교(Green School)로 바뀐 사연을 들어보면 한국의 그린 리더 배출도 머지않아 보인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대왕중학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다소비 학교였다. 여름철 실외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학생들은 교실에서 에어컨을 켜달라고 아우성이었다. 겨울이면 서울 강남의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실 온도를 높여달라는 학부모들의 전화도 빗발쳤다.

그랬던 이 학교 학생들이 요즘에는 전기 1킬로와트, 가스 1세제곱미터의 가치를 따지고 있다. 학부모들도 자녀와 함께 가정용 전기, 수도, 가스, 생활쓰레기가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계산하고 있다. 교사들은 녹색성장 교육을 위해 교과과정을 바꾸는 한편 학교 건물에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대왕중 1학년 환경인증 도서의 제목은 '즐거운 불편'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이 책을 보고 저탄소 생활을 익히도록 도와준다. 화석연료인 석유를 아끼기 위해 자전거를 타거나 쓰레기 분리수거에 나서는 일에는 불편이 뒤따른다. 하지만 환경을 위해 이런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먹이사슬(Food Chain)에서 포식자(Predator)와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Scavenger)을 알아 봅시다.' 대왕중 2학년 생활영어 시간에 나오는 질문이다. 학교는 환경 용어를 교실에서 익힐 수 있도록 환경교육 자료를 영어 교실에 배부한다. 1학년 창의적 재량 시간과 3학년 외국문화 이해 시간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온 캐나다와 같은 외국 사례와 저탄소 실천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녹색성장' 머리로 배우고 체험으로 익혀

녹색성장 개념을 머리로 익힌 학생들은 체험 학습에 들어간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이산화탄소를 측정한 뒤 식물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기, 화력·원자력·풍력 발전소 탐방, 학교 앞 숲 가꾸기 운동이 그런 예다. 대왕중 앞 대모산은 학생들이 스스로 저탄소 생활을 배우는 천혜의 환경이다.

학생들은 주말이나 방학 동안 시간 나는 대로 발전소를 찾아가 에너지 생산 과정을 지켜본 뒤 환경 리포트를 학교에 제출한다. 학생들이 낸 환경 리포트는 학교 녹색성장교육부 파일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저탄소 녹색생활에 습관이 붙은 학생들은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고 환경 자원봉사자로 나선다. 미래의 그린 리더들은 학교 밖으로 자주 나간다. 환경 동아리 회원 중 도시 습지를 탐구하고 있는 1학년 이현우 군 등 학생 4명은 주말이면 학교 주변 양재천에서 물고기를 관찰하기 위해 수시로 강물에 들어간다.

학생들의 녹색생활 실천은 학부모들의 호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과 함께 가정용 전기, 수도, 가스 소비량을 매달 점검하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대왕중 건물 1층 중앙 통로에는 태양광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날씨 좋은 날 이 발전기에서 축적된 전기는 일단 학교가 사용한다. 학교가 문을 닫은 뒤에 생산되는 전기는 한국전력공사로 보내진다.

학교는 한 달 전기 사용량에서 태양광 전력 생산량을 뺀 나머지 전력량을 돈으로 환산해 사용료를 낸다. 이 학교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2백만원 안팎. 학교는 태양광 발전기를 가동한 뒤 매월 20만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기 가동으로 얻는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연간 5톤이다. 교사들은 지금 기술 수준에서 태양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태양광 발전기 모니터하며 녹색기술 개발 각오 다져요"

학교 환경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1학년 한주엽 군은 "태양광 발전기 모니터에서 발전량을 점검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하루빨리 녹색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대왕중을 '그린스쿨' 모범학교로 지정했다. 대왕중은 그린스쿨 프로그램을 2년간 운영하면서 학교가 달라졌다. 교실에서는 불끄기 습관이 뿌리를 내렸다. 또 쓰레기로 가득 찼던 매점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 이 학교 화장실은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으로 얼룩진 지저분한 공간이 아니다. 화장실은 요즘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학교 급식과 교통정리를 돕는 환경 자원봉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그린스쿨 효과다.

대왕중은 2년 동안 축적한 그린스쿨 경험을 다른 학교와 공유할 계획이다. 김승수 교감은 "환경오염 방지 등의 '친환경' 교육과정만 운영하던 주변 학교들이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익숙하지 못해 우리 학교에 많은 것을 문의한다"고 말했다. 학생들 입에서 '녹색성장이 단순히 공해를 줄일 뿐 아니라 경제도 새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김 교감의 얘기다.

김 교감은 "지금까지의 그린스쿨 운영 경험을 자료로 만들어 올해 안에 녹색성장 교육 모델을 주변 학교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

글 · 정위용(동아일보 교육복지부 기자)

대왕중학교 이옥란 교장

"나부터 실천하는 녹색성장 교육의 장"



"흥미를 갖고 녹색성장 교육을 접하게 한 뒤 친환경 습관을 익히게 하는 것이 미래의 녹색 리더를 키우는 길입니다."

대왕중학교 이옥란 교장이 말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 방식이다. 이 교장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녹색성장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 교육을 학교에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 환경이 풍족하고 소비 성향이 높은 곳에 자리 잡은 학교여서 학생들의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습관을 고쳐야 지구를 살린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한편, 학교 본관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주제로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의식 전환을 유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이 과거의 환경운동과 요즘의 녹색성장 캠페인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줄 압니까.

지난해까지 학교는 에너지 절약, 교복 물려주기 등 온실가스 저감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는 학교에 녹색성장교육부를 신설하고 친환경 성장을 주제로 외부 강사 초청, 녹색성장 체험 학습 횟수를 늘렸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충실했던 학생들은 이제 "녹색성장이 단순히 공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린스쿨 프로그램에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녹색성장 교육을 위해서는 '흥미'와 '재미'라는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아무리 좋은 캠페인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팔짱만 낍니다.

학용품과 생활용품을 바꿔 쓰기 위한 장터를 열 때 학생들이 시장 상인 차림으로 분장하게 하거나 댄스그룹 비보이를 초청했더니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졌습니다.

학부모들도 녹색성장에 관심이 많아졌습니까.

학교에서 외부 강사 초청 강연이 열리면 강의 내용을 다시 듣고 싶다고 말하거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물어보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식수준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학생들이 받는 환경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새로운 삶 준비하는 노년층 주택연금은 든든한 버팀목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다시 직장 다니는 기분"

집 한 채 외에는 노후 준비가 안 된 노년층에게 주택연금은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평생 내 집에서 살 수 있어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의 혜택을 함께 얻을 수 있다.

1 | 퇴직하고 15년쯤 지나자 퇴직금은 바닥나고 재산이라고는 89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만 남았다. 할 수 없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썼다. 돈 쓸 데는 많은데 대출이자는 점점 높아지고 경제적 압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신문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했다는 노부부의 기사를 보고 남의 일 같지 않아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2007년 7월 우리나라에도 주택연금이 도입됐다는 기사를 읽고 또 읽으며 '가입하자'고 마음을 정했다. 그래도 자식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했다. 다행히 두 아들 모두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지 않는다"며 선선히 동의했다. 즉시 서류를 준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부에 가입을 신청했고, 2007년 8월부터 연금을 수령해 현재 26회나 됐다.

매월 연금을 받을 때마다 일부를 떼어 조금씩 저축도 했다. 어느 날 손녀가 멕시코로 어학연수를 간다기에 돈을 조금 보태주었더니 좋아서 "할아버지 넘버 원"을 외치며 깡충깡충 뛰었다. 돌이켜보면 일찌감치 주택연금에 가입한 게 참 다행스럽고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홍중현 · 88세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 | 우리 부부는 6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집 한 채로 살고 있다. 그동안 네 번이나 집을 줄이고 변두리로 이사했다. 이사할 때마다 1억여 원에서 수천만원의 여유자금을 만들어 가장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을 골라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자가 더 떨어지지는 않을지, 언제 또 집을 옮겨야 할지 늘 불안한 생활이었다. 돈은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줄어들었고, 집을 또 옮기기에는 너무 노쇠하고 변두리로 이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어느 날 주택연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를 찾았다. 상담을 하고 공사 직원이 집을 답사하고 내부를 촬영해간 후 주택연금 수령 계약 절차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거래은행에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연금수령 신청서를 제출하자 열흘 만에 1백70여 만원의 연금이 입금됐다. 더 이상 이사하지 않고도 살길이 트였다는 생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우리 부부는 이제 아무리 어려운 불경기가 닥쳐도 정든 내 집에서 생을 다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손자들에게 용돈도 조금씩 쥐어줄 수 있으니 더 부러울 게 없다.

이덕수 · 80세 ·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한 주택연금 출시 2주년 기념 고객 체험 수기집에 실린 글이다. 생활고에 쪼들리다 주택연금 가입 후 자녀들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아도 돼 어깨를 펴고 산다는 할머니, 매달 통장에 연금이 입금되는 것을 보면서 오랜 '백수생활' 끝에 다시 직장에 다니는 듯한 즐거운 착각에 빠진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09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성 76.2세, 여성 82.8세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것. 집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다.

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소득 없는 삶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혜택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자녀들한테 손을 벌리기도 어렵다면 늙은 몸을 이끌고 계속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할 형편이다. 이렇듯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하는 노년층에게 주택연금은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것으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매달 받는 연금액은 주택 가치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택 가격과 신청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연금을 받는다.

연금 지급 방식도 다양하다.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받거나, 처음에 많이 받다가 나중에 적게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주택 담보로 노후생활자금 매달 연금 형식으로 받아

주택연금은 가입한 뒤에도 언제든지 대출 잔액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만약 중도에 전부 상환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다.

1주택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부부 합산 주택이 1채이기만 하면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을 소유했더라도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자녀 부양과 유산 상속 등 고정관념 때문에 더디기는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총 1천1백24명으로 2008년의 6백95명보다 62퍼센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가입자 수는 2천3백3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김형목 파트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주택을 활용해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광주, 부산은행 및 농협중앙회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G 글 · 이혜련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 Tel **1688-8114 www.khfc.co.kr**

주택연금, 이런 게 궁금해요 Q&A

Q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

A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대출금에 대한 채무인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Q 다른 대출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

A 주택연금은 담보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는 금융기관 또는 사금융의 대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이용대상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대출한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인출 한도를 사용하여 1개월 이내에 해당 선순위 저당권 등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Q 주택처분가액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모자라거나 남으면 어떻게 되나.

A 주택처분가액이 대출금 상환 금액에 부족하더라도 다른 재산 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면, 주택처분가격에서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고 남을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가입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가입 연령	60세(부부 모두 충족)	
대출 한도	5억원	
월지급금 지급 방식	정액형	증감 없음
	증가형	매년 3%씩 증가
	감소형	매년 3%씩 감소
지급 방식 변경	가능	
초기비용	근저당권 설정 시 농특세 전액 면제	
이사	이용 도중 이사 가능	
개별인출 한도	대출 한도의 50% (최대 2억5천만원 이내)	
개별인출금 용도 제한	– 주택 구입,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외에는 모두 허용 – 선순위 대출금 상환 가능	
소득공제	조건 없이 소득공제(가입자 전체)	

시중은행 역모기지 VS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구 분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청 자격	40세 이상 80세 미만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대출 기간	확정(5~30년)	종신
거주권 보장 여부	대출만기 후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 처분(퇴거 불안)	이용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거주 가능(주거 보장)
상환 방법	만기 일시 상환	사망 후 주택처분금액으로 상환
보증 여부	없음	공적보증

어린이에겐 어린이용 藥을 과다복용 땐 ☎1339로

어른도 잘못 복용하면 해가 될 수 있는 의약품. 하물며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약을 먹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담은 알림쪽지를 배포했다.

주부 김은영(38) 씨의 열 살 난 아들은 최근 한밤중에 열이 섭씨 39도까지 오르며 심하게 앓았다. 집에는 어린이 해열제가 없는데 약국도 문을 닫은 늦은 시각이라 김 씨는 급한 마음에 성인용 해열제를 절반으로 잘라 아들에게 먹였다. 요행히 열은 내렸지만 내심 찜찜했다. 성인용 알약을 반으로 잘라 먹인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단순히 몸무게가 가볍고 몸집이 작은 것이 아니라 신체 발달 상태나 약에 대한 반응이 어른과 다르기 때문에 어른 약을 용량만 줄여 먹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이렇듯 복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의약품. 특히 어른보다 면역력과 체력이 약한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이 어린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요약 정리해 알림쪽지 형태로 제작, 시중에 배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여러 가지 증세를 한꺼번에 치료한다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임의로 섞어 먹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를테면 아이가 감기와 두통을 호소한다고 해서 감기약과 두통약을 이중으로 먹여서는 안 된다. 감기약과 두통약에 동일한 유효성분이 포함돼 있어 두 가지 약을 한꺼번에 먹이면 유효성분을 적정량의 두 배로 먹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신체발달·반응 등 달라 어린이 의약품만 사용해야

아이의 증세가 이전보다 조금 더 심하다고 해서 처방된 양보다 더 많은 약을 복용시키는 것도 위험하다. 아이에게 적정량의 약을 먹이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약을 투여한 시간이나 용량을 기록해 두는 게 좋으며, 일부 의약품은 아이의 체중을 기준으로 투여할 때가 있으므로 아이 체중을 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의약품에 대한 맹신도 금물. 어떤 의약품도 1백 퍼센트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언한다. 특히 철분을 함유한 의약품은 어린이 약물중독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므로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의약품은 색이 곱고 향긋한 특성이 있어 어린이가 사탕으로 착각하고 먹을 수도 있으므로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되도록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고안된 안전용기에 약품을 담아두는 것도 요령이다.



약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어른 약을 용량만 줄여 먹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채규한 약무사무관은 "2008년 미국에서 의약품을 잘못 복용한 부작용으로 12세 미만 어린이가 응급실을 찾은 건수만 5만 건을 헤아린다"며 "그만큼 어린이 의약품 오남용은 위험하므로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어린이가 의약품을 과다 복용했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전화 1339)에 긴급 연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의약품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의약품뿐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 의약품 사용 설명서도 제작해 배포한다. 어린이 의약품 사용 방법을 담은 알림쪽지는 시중 약국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오늘은 내가 동화 속 주인공"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가상 현실로 동화 구연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해본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내 가상현실 동화 구연 체험관에서는 그 상상이 이제 현실이 된다.**



가상현실 동화 구연 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이 동화 구연가의 안내에 따라 가상체험을 해보고 있다.

서울 역삼동에 자리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2층 멀티미디어실을 찾은 어린이들이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28제곱미터 규모의 동화 구연 체험관에 어린이들이 들어서자 정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의 배경화면이 펼쳐지면서 동작 감지 센서가 부착된 카메라가 아이들의 모습을 스크린 속 배경화면에 투영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동화 구연가의 안내에 따라 늑대를 쫓아내고 집을 짓는 등 자신들의 역할을 멋지게 소화해냈다.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신기하고 특별한 체험을 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동화 속 배경의 3차원 가상공간에서 아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 돼볼 수 있는 '체험형 동화 구연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현실 동화 구연 체험관'이 문을 열었고, 1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체험형 동화 구연 서비스'는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인터페이스 기술과 손발을 이용한 가상공간의 대상물 선택, 제스처 인식 등 상호 인터랙션 기반의 가상체험을 통해 실재감을 더한다.

이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지난해 1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가상현실 기술 및 첨단 디지털 장비 등을 지원받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향후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기술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서비스로 발전시켜 전국의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작 감지 센서로 어린이 모습 스크린에 투영

'체험형 동화 구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www.nlcy.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6~9세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회에 9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매일 하루 2회씩 운영되는데 주말은 신청자가 많으므로 평일을 이용하는 게 좋다. 운용 시간은 회당 15분 남짓. 현재는 '아기돼지 삼형제'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혹부리 영감' 등 프로그램 콘텐츠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나승열 주무관은 "체험형 동화 구연 서비스는 책을 읽기만 하던 기존 도서관 역할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이들이 책과 좀 더 친숙해지고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4대강 살리기
제 37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경치 좋다~
검은머리물떼새
도요목 검은머리물떼새과
학명 : Haematopus ostralegus osculans
천연기념물 제326호
역시 눈이 와야 겨울답지?
우리야 좋지만 인간들은 난리던데?
?
검은목논병아리
황새목 논병아릿과
학명: Podiceps nigricollis
비닐하우스가 무너지질 않나, 교통이 마비되질 않나….
쯧쯧….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
겨울 눈은 그래도 홍수는 나지 않지만 여름에 비가 한꺼번에 이만큼 왔다면 아마 지금쯤 난리가 났을거야.
아!
그렇겠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
인간들이 강바닥을 준설하고 저수지를 보강한다기에 왜 그러나 했거든?
이렇게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저장했다가 물이 부족할 때 쓰려는 거였어!
아하~
물도 저축할 줄 알고, 인간들 생각보다 똑똑한데?
그러게!

'부활의 꿈' 기업들이 도와준다

신용회복위 소액금융 지원, STX 그룹 50억원 등 도움 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지원사업이 대출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 최근 STX그룹,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신용문제나 부채로 곤경에 처한 국민들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업과 금융회사의 자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STX그룹은 지난해 11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무상 대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사장, 이종철 STX 부회장,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부채나 신용문제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에게 재기의 길을 열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지원사업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다. 2006년 11월부터 시작된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2009년 11월까지 총 1만6천6백48명에게 생활안정자금, 병원비 등 긴급자금을 지원했으며 대출 실행금액 기준으로 5백억원을 돌파했다.

2007년까지 1천1백85명이던 소액금융 지원 실적은 200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같은 해에 4천4백88명, 지난해 11월까지 1만9백75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백93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중호 홍보팀장은 "사금융 외에는 달리 금융권 대출을 기대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의 소액금융 지원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소액대출 신청 수요가 매월 40억원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소액금융대출은 12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하나같이 금융채무로 아픔을 겪은 이들이라 5백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5천만원 이상의 가치로 여긴다. 지금까지 5백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연체율이 1.9퍼센트일 정도로 상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대출 재원이 4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STX그룹이 50억원을 무상 지원하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급여 반납을 통해 32억원을 기부하기로 해 큰 힘을 얻었다. STX그룹은 지난해 11월 24일 신용회복위원회와 'STX 희망나눔 론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50억원을 3년간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대여한 것은 STX가 처음이다.

이 지원금은 올해 초부터 1인당 5백만원 이내, 대출 기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간 4퍼센트 이하의 탄력적 대출이자를 적용해 대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종철 STX 부회장은 "올해부터 STX그룹의 지원금이 약 1천7백여 명의 금융소외계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더욱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원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LH공사 임직원 임금 반납으로 32억 기부도

지난해 11월 25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소액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 LH는 올해 말까지 최대 32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은 지난해 10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2급 이상 임직원들이 반납한 임금을 통해 조성된다. 이는 무상대여가 아닌 순수 기부로는 최대 규모이며 임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해 기부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지송 LH 사장은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을 따뜻하게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용회복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상환 계획을 이행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향후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 홍성표 위원장은 "신용문제나 부채로 곤경에 처한 국민들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STX와 LH의 지원을 계기로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Tel **1600-5500 www.ccrs.or.kr**

책으로 여는 산뜻한 2010년 올해는 나도 '多讀王'



책 속에는 무수한 이야기가 꿈틀거린다. 주변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에서부터 역사 속 위인들의 숨은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려주는 정치·경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읽을거리가 담겨 있다. 직접 경험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 접하다 보면 살아가는 순간순간 현명한 판단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편식할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매달 초 소설, 경제 실용서 등 여러 분야의 책 10권을 전문가를 통해 추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주목받을 키워드를 담아낸 책 3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세련된 필체로 현대인들의 삶을 농밀하게 그려낸 소설가 정이현의 신작 〈너는 모른다〉는 삶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 사회의 키워드인 '가족의 소외감'을 주제로 하고 있어 자칫 뻔한 가족소설 같지만 추리소설 형태를 유지해 긴장감 있게 읽힌다. 소설가 신경숙은 "가족들이 맺고 있는 관계 속의 상실감을 절감하면서 '현대의 삶 속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라고 평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지구온난화의 위험 〈기후변화의 정치학〉

다음은 2009년 내내 주목받은 키워드인 '기후변화'를 주제로 앤서니 기든스가 쓴 〈기후변화의 정치학〉이다.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는 전 세계인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다음 세대의 후손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바로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인 앤서니 기든스는 다가올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에너지 안보정책과 적절히 결합하자는 등 다양한 제안들을 책에 담았다.

2010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식의 세계화'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에 맞춰 시인 백석이 시(詩) 속에 표현한 한식 이야기들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울산대 소래섭 교수가 지은 〈백석의 맛〉이다.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란 시 '국수'의 일부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석의 감수성이 묻어나는 시 구절은 우리 음식에 대한 애틋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G

글 · 김민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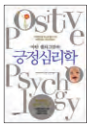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kpec.or.kr



너는 모른다
정이현 지음 · 문학동네 펴냄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미스터리 소설
추천 신경숙(소설가)



클래식 중독
조선희 지음 · 마음산책 펴냄
한국 영화의 고전이라 할 만한 대표작과 감독, 배우들의 이야기를 쓴 책
추천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긍정심리학
마틴 셀리그만 지음 · 김인자 번역 · 물푸레 펴냄
심리학 교수인 저자가 행복에 대해 쓴 책
추천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승정원 일기, 소통의 정치를 논하다
박홍갑 외 지음 · 산처럼 펴냄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된 승정원 일기를 통해 조선 정치의 내면을 보여주는 책 | **추천**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백석의 맛
소래섭 지음 · 프로네시스 펴냄
백석의 시 60편에 담긴 1백10종 한식을 통해 당대 지식인의 삶을 노래한 책 | **추천** 이한우(조선일보 출판팀장)



기후변화의 정치학
앤서니 기든스 지음 · 김인자 번역 · 에코리브르 펴냄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기든스가 기후변화에 대해 요약한 책
추천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슈퍼 괴짜 경제학
스티븐 레빗 외 지음 · 안진환 번역 ·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테러나 매춘처럼 경제학과는 상관없는 주제가 경제학적 분석 대상이 되는 책 | **추천**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생명의 미학
박상철 지음 · 생각의 나무 펴냄
생명활동의 복잡한 현상들을 결정하는 본질적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과학자의 입장에서 고민한 과학서 | **추천** 최영주(포스텍 수학과 교수)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
이영직 지음 · 스마트 비즈니스 펴냄
하인리히 법칙에서 파레토의 법칙까지 다양한 법칙들을 망라한 실용 교양서 | **추천**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동네 사진관의 비밀
정혜경 글, 그림 · 느림보 펴냄
아이 시점으로 가족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을 담은 책 | **추천**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이금이(아동문학가)

진심으로 함께하는 것

글과 그림 · 최영순



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때로는 과학보다 더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것은 환자의 내면에서 자연적인 치유의 힘을 끌어내는 긍정적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다.

– 백태선 원장(예풍혈관클리닉)

Culture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근대 조각의 거장을 만나다


부르델

한국 근대 조각의 거장 '권진규' 전

일시 2월 28일(일)까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월요일 휴관)
장소 덕수궁미술관
관람료 성인 5천원, 중고생 3천5백원, 초등학생 2천원
문의 02-2188-6000 www.moca.go.kr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 근대 조각의 거장 권진규(1922~1973)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학창 시절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 전체를 조망하고자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조각 1백 점과 드로잉 40점, 석고틀 1점을 선보인다. 반세기 만에 처음 공개되는 졸업 작품을 비롯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그의 진면목을 엿보게 한다.

권진규는 1948년 일본으로 건너가 무사시노 미술대학의 전신인 무사시노 미술학교 조각과에서 조각을 공부했으며 현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1959년 귀국했다. 이후 테라코타와 건칠을 주재료로 한 조각으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이룩했다. 작품의 주제도 남녀 인물, 동물, 추상 등으로 다양해졌고 작품의 영역 또한 환조와 부조를 넘어 회화, 드로잉 등에까지 미쳤다.

국립현대미술관 류지연 학예연구사는 "일본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무사시노 미술대학 미술자료도서관과 공동 기획으로 일본에서도 '권진규' 전이 열린 바 있다"며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권진규 선생의 스승인 시미즈 다카시(淸水多嘉示·1897~1981)의 작품 12점과 부르델(E.A. Bourdelle·1861~1929)의 부조 작품 5점을 함께 소개해 그의 작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시 기간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권진규 아틀리에가 무료로 개방된다. 권진규 아틀리에는 1959년 귀국한 권진규가 2년에 걸쳐 직접 지은 작업실로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자리하고 있다. 전시 기간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품 설명회도 매일 7회씩 운영된다. 한국 현대미술사(1950~1970)와 한국 현대 조각, 작가 권진규를 살펴보기 위한 '릴레이 강연회'도 개최된다. G 글·김지영 기자

어린이 우수공연 축제 '달려라 달려 달달달!'

일시 1월 17일(일)까지 평일 오후 2시,
주말 오후 2시, 4시(월요일, 16일 쉼)
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
문의 02-584-9039~41 www.ntok.go.kr



국립극장이 공연예술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어린이 우수공연 축제를 연다. 그 첫 번째 작품인 '달려라 달려 달달달!'은 전북 무주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극이다. 연극은 예부터 구씨와 천씨가 살고 있는 무주 구천동의 한 마을에 유씨 가족이 이사를 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유씨 가족은 처음에는 욕심쟁이로 소문난 구제수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우연히 만난 암행어사 박문수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다.

오페라 '이도메네오'

일시 1월 21일(목)~24일(일) 오후 8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VIP석 15만원, VIP석 12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문의 02-586-5282 www.sac.or.kr



2백30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모차르트의 걸작.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신의 뜻을 거역하고, 끓어넘치는 사랑과 용기로 운명을 거스르는 주인공들의 고뇌와 시련을 그렸다. 전형적인 이탈리아 오페라세리아(신화나 영웅담에서 소재를 얻은 진지한 내용의 오페라)에 바탕을 둔 대본 위에 당시 유행하던 장황한 바로크 기법 대신 다이내믹하고 서정적인 음악을 덧입힌 모차르트의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희망 2010
나눔 캠페인
당신의 1 나/눔
누군가의 100 행/복
나눔은 행복투자입니다
행복주주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1%가 누군가의 100%로 다시 태어나는 일 -
나눔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투자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ARS기부 070 · 700 · 1212 기부상담 080 · 890 · 1212 www.chest.or.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족의 손길처럼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해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모금 및 배분전문기관입니다.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가가호호 아이둘셋
하하호호 희망한국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육아와 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고
집에서 돌보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친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입양, 낙태 예방,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로 미래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